

---

제3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1961년1월11일(단기4294년) 상오10시35분

---

의사일정

1. 제4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42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시장시정방침설명
  4. 단기4294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문교시책설명에관한질의
- 

부의된안건

1. 제4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2面
  3. 단기42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시장시정방침설명 ... 7面
- 

(10시 35분 개회)

○의장 한상기; 재석30인으로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

1. 제4차회의록통과

(회의장 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빠진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면 이회의록 통과되겠습니다.

오늘 낭독한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박관서의원과 김재만의원 두분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들어갈것인데 의장으로서 한마디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 상호간의 우의를 손상시키는 이런 발언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소란해지고 의회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이런 발언은 일절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유감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건 의장이 말씀아니 할지라도 의원스스로가 실정을 잘 파악해서 발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만약 앞으로 이런 보고사항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의회의 존엄성과 의원 상호간의 우의를 손상시키지 않기위해서 부득불 그 발언을 중지시킬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보고사항 시간이 특별히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신상 발언주시요」 하는이 있음)

지금은 보고사항 시간입니다.

이익렬의원 보고해주시요.

---

## 2. 보고사항

○이익렬 의원; 간단히 우리 동행정에 대해서 한마디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구 모동회에 형광등 6등을 설치하라고 아마 구청에서 시

달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형광등 6등을 설치했는데 기 가격을 매등에 3천5백환씩 내라고 아마 요구를 한것같습니다.

그래 그동장이 얘기하기를 시가 2천5백환 짜리를 3천5백환을 달라는데 그달라는데도 좋으나 예산없는 동회에다가 강요를하니 이러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모동장이 오늘 저의집에와서 이런얘기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간사장이 시정과장이 여기에 계시니 동정계장을 불러가지고 이런일이 있는가 물어서 이것을 주의시켜주시기 바라고 나는 보고사항을 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명과구를 모르면 나한테 물어주시면 알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중구 읍지로 6·7가동에 동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이러한 일이없도록 해주시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전기가 상당히 절약되어야 가정용도 제대로 키지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또 가로등을 설치한다 하지만 내가 보건대는 가로등 열번 켜도 소용없어요. 또 켜지도 않습니다.

이것 시에 유익한것이 아니라 불리하다고 보아서 형광등 내지는…….

시에서 시달이 안간것으로 보는데 도중에서 이 발언이 났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러니 시정과장은 오늘이라도 조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것을 부탁하고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상기; 보고사항은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문학우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 하세요.

○문학우 의원; 이것 창피스러워서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창피를 무릎쓰고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을 대변하는 서울시민의 살림사리를 잘해보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질 것입니다.

시민의 살림사리를 잘해보자 하는 것은 의원 각자가 소신과 신념을 반영함으로써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듣고 시정을 하는데 그 목적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이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바인데 이 발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충고를 해주시는 또는 권고를 해주시는 여러분이 초선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혹 여러분의 비위를 거슬렀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불적에 상당의 상식이외의 태도로서 대하는 몇몇 의원이 있는 것을 불적에 나 자신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신상 발언을 하기 전에 의사 진행이라고 하는 발언 통지서를 의장께 보냈는데 의장이 신상 발언에 대한 것을 특히 제재를 하는 경향 면으로 나가는데 나 구지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아침 개회 전에 의사당 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신 여러분들이 비판해주시라고 믿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 자신도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서 앞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제가 한번 여기에서 야유 부대가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발언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공기와 분위기가 조성되고 실제로 이러한 행동이 여실히 나타

나고 있는것입니다.

단상에서 발언하는 의원에 대해서 야유를하고 제지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보겠다고하는 몇몇의원들의 그러한 행동을 불적에 이러한일이 없게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아침 개회전에 激斗에 가까운 불상사가 벌어졌다는것은 제 자신먼저 부덕하고 경솔했다는것을 뉘우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의회운영을 과벌적인 또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발언하는 의원에 대해서 불순한 태도가 계속된다고하면 오늘아침 개회전 사건을 계기로 감정적 폭발이 어느시기에 오지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런점으로 미루어보아서 직접 나와의 상대자외의 의원 여러분에게는 본의원 충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의 존엄성을 가장 존중해야 될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경솔했다고하는 점에대해서 저를 상대한 당사자를 제외해 놓고 52명 여러분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는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아침 이 문제의 도화선이 결국 발언통지서에 내놓았던 여기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기때문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통지서를 내놓고 취지는 어디까지나 선의적인 면에서 이것을 해볼려고 했던것이 개회직전에 쓸데없는 불상사로 발전이 된것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언필칭 여기에 오셔서 초선재선 구별로 하지고 재선의원들에게 한 발언이 많다. 사실상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을 하지않을려고 이렇게 보고있으면 이렇게 재

선의원들이 발언안하는 동안에 초선의원이 어느분이 말씀을 하셔야 될터인데 의사진행에 공간이생긴다 이말이에요.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뛰어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나도 지극히 이발언을 회수를 줄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 4항으로 상정되어있는 이 정책질의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재선의원들이 뒤에서 초선의원들을 뒤받침을 해주어서 정책질의의 선봉에 나서도록 이러한 제사진행을 발언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통지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마 이것이 내 그릇된 생각에서 또는 쓸데없는 걱정에서 이러한 의사진행을 할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두 여러분들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정책질의부터 이렇게 선봉에 내세워서 뒤에서 코치를 해서 하도록 하면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의라든가 좀 뒤받침이 되지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나왔던것이 못하지않은 방향에서 뜻하지않은 사고를 유발시킨걸로 알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충정은 다같이 앞으로 4년간 서울시의회를 다른지방의회보다 보다낱은 의회로 운영을해보자고 하는데 그의도를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것이 쌓지못할 감정이 유발되고 급기야는 멱살잡이까지 했다고하는 이 문제는 마 당사자간에 지극히 불명예스럽고 한걸음 더나가서 서울시의회 전체에대한 불명예라고하는 점에 있어가지고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서는 그러한 방향으로해서 재선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옆에앉아 계시거나 또는 잘아시는 분에게 지도를 하셔서 초선의원들로 하여금 의제3항 4항에대한 전반적인

정책질의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조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의사진행으로 드려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잘 하셨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장 한상기; 의제 제3항 단기429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장 시정방침에 관한 질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상준의원 정책질의 해주세요.

---

3. 단기4294년도시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시장시정방침설명

○심상준 의원; 심상준이 올시다.

구체적인 정책질의에 앞서서 선행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해서 또 초선의원으로서의 처음 중요한 발언이라고해서 또한 시장으로서의 능숙한 말 솜씨와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인 답변을 피하고 확실하고 신임할수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하여 시장의 즉각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께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시장이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서 좀 기다리십시다.

(시장입장)

계속 하겠습니다.

내가 쪽 존경하고 사모하였든 김시장님께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말씀을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되푸리 하지않으니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문제가 그러한말을 다시 하지아니하면 안되는 입장에 처하였기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리니 그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명확하고 우리의원  
들이 신빙할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시장이 취임 초초에 인간문제에 대해서 많은물의를 야기해  
고 또한 현재 근무하고있는 부시장이하 각국장이 전전공공하  
는 심정이라고 밀어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수자가 어디에서 나있는지는 모르나 60%내지 65%  
의 부정이 있다고 하는것을 대법원장한테 세배를가서 들었다  
고 그말씀을 공언한 사실을 비추어 보아서 제가 시장님께 질  
의를 아니드릴수없는 문제라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하는것은 제가 진실하게 또한  
진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장님은 수많은 연설  
을하셨고 이거 혹시 실례의 말씀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임기응변적인 말씀또한 그것으로 답변이 있지않을까해서  
이몹시 실례인줄 압니다마는 우려하는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기자회견석상에 있어서 과법임  
명시장의 있어서도 시장의 인사조치에 의해서 그의 신축성  
소위 자유스럽게 인사쇄신을 하기위해서 예의적으로 의례적  
으로 사표를 내는게 도리인데 특히 민선시장인데 그런 말썸  
을했는데 거기에 도에 비어란 일이 무엇이나하는 말씀을하셨  
고 특히 그런 말씀을 연후에 과거 자유당시절에 있던 당신네  
들이 여지껏 내질않아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는 위협적언사를  
하신 기억이 역역히 나고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질의에앞서서 부시장이하 각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있어야 할터인데 부시장이하 각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있어야 할터인데 부시장이하 각국장의  
사표를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를 바라고 또한 안받아주셨다고하면 이분들의 인사조치를 어떻게할것인가 또한 명확한 답변을하여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에있어서는 예산안을 볼것같으면 김시장의 말씀대로 과거에 60% 65%의 부정이 있다고 하는것을 확실한 증거가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썩어진 사람의손에서 이루어진 그예산이 우리 의원들 앞에 나왔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손에 또한 의원들눈에서 많은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부정을 알고서 먼저 그런일을 한다고 할수있는……. 있다고 보지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아까 한가지말씀드릴것은 아브라함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약한 개인의 권리도 침해할수없는 가장약한 국가는 그만큼 다대수의 국민의 지지를받은것」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회가 의원들이 가지고있는 권리를 비록약하다고 혹시 해석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부여되고있는 이임무라든가 이권리는 누가 침해할수없다고 하는것을 굳게 믿어서 또한 김시장님께서서 우리 220만시민이 기대하여 마지않는 그 시장님이라고 믿어서 시장님의 말씀에 어김없다는 것을 믿어서 부정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있고 또 그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하는 예산안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이 심의하기전에 그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의장 한상기; 김제윤의원 의사진행입니다.

○김제윤 의원; 김제윤이 올시다.

이사람이 의사진행상 부득불 올라온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합니다.

극히 노파심이라고 이렇게해서 여러분께서 꾸지람을 하실런지는 몰라그러되 지금까지 이정책 질의에 있어가지고 왕왕그러한 사례가 많이있음으로 해가지고 물론 제2대째 맞이하는 우리의회에 있어서는 그럴리가 없으리라 하는것을 생각하면서 역시 제기 걱정이 좀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것을 질의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어떠한 의원이 나와가지고 질의를한그내용이 또한 모의원이 나오면 연거퍼서 중복되는예가 있을걸로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코 무슨 말씀이냐하면 이시간의 낭비요 또한 답변할수있는 그 위치에있는 집행부에 대해가지고 몹시 그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걸로 해가지고 의장이 네의장 이야기를 앞으로 안할려고 합니다만 의장에 대해가지고 몹시 질책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의장이좀 마음에 짐작을 하여가지고 이중복되는 질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의사봉을 가지고있는 의장이 조절을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이런것이 이 무한정하게 이사람도 나와 저사람도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있어서의 이런것이 시기낭비의 초점이 될것입니다.

지금 벌써 3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제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이 꼭 열하루.....

앞으로 법정기일이 어떻게되느냐 하는 방금 이사람이 예산

을 꼭 2월말일까지만이 통과해야만이 우리위원의 임무를 다하는가 그법정기한이 여하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상급의회가 또 기타 알만한 사람과 지금 연결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달 말일까지라는것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으로 쫓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고로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좀 의장께서는 이런면을 유의해서 해주실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원각자께서도 좀 삼가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걸로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고 또하나 말씀드리기 거북한 말씀이지만 역시 지금 심상준의원이 그 원칙상으로 보아서 질문하는 그 요지 내용은 극히 옳은 그질문을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갖어집니다만은 저번날 시장진상규명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을 요해가면서 그분 위기적으로해서 시민전체에 비추어가지고 여러가지 납득이 가지않는 우리가 서루를 설왕설래 응답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가져집니다.

일응 이문제는 끝난걸로알고 있는 또한 그걸루 결정짓고 앞으로는 이상 이내용질문에 잇어가지고 사실상 살림사리를 당위하는 내용에 잇어가지고 어떠한 방침으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결과는 무엇을 초래할것이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등등이 초점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면에 대해가지고 이사람이 두서없는걸로해서 의사진행을 합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참고로 삼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상기; 현 김제윤의원의 발언은 명 발언입니다.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감이있습니다.

물론 그런주의를 안받을지라도 의장으로서는 중복되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그 중복되는 질의를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발언을 제한할수있겠는데 여러분이 재선의원이 참여인이고 초선의원이 재선의원 못지않게 일대일이다.

이런발언이 있는데 이 현명한 의원들이 의장의 발언을 제한받은 그런 불현명한 의원들은 한분도 안계실 줄 압니다.

앞으로 정책질의에 대해서 한말씀도 중복되지않으리라고 나는 확신을해서 「뱀」에 살을 부치는감이 김제윤의원의 발언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정도로 여러분이 대단히…….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는데…….

그발언통지 받은분이 없는데 아까…….

이제 곧 발언통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질의를하신후에 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사문제를 먼저하지않으면 안되요」 하는이 있음)

(「인사문제 답변하라고 하세요」 하는이 있음)

문학우의원…….

발언하십시오.

○문학우 의원; 지금 의장께서 이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질의를 전부다 듣고 시장의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열다섯분 가량의 정책질의가 나온것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열다섯분의 질의를 다듣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얘기인데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예가 이문일답이라든가 그러한 규정을 지어가지고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선 정책질의를 앞서서 심상준의원께서 대체적인 질의를 한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우선 심상준의원에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문일답식으로 두분이 질의를하고 두분이 질의가 끝난후에 시장이나와서 답변을하고 이문일답식으로 이런 의사진행을 다해주셔야 질의에대한 권위도스고 또 답변도 우리가 확실히 풀어서 소화를 시킬수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있기때문에 제생각으로서는 이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기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한상기; 그 문의원의 발언은 그저 의사진행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내소연)

내 그러면 이의이 구구하면 결의를 얻어야 되는데 별것이 없으면 삼문일답식으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이 결정하세요」 하는이 있음)

의사진행이요? 강의원 의사진행하세요.

○강을순 의원; 이제 시장보고 인사문제에 대한 답변을해라 이런 얘기인데 현재 의사진행상 3항에 올라있는 의제를가지고 여기에대한 심상준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답변하는것을 세분씩하고 난다음에 답변하시게 이렇게 의장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인사문제를 먼저듣고 질의한다 이것 있을 수 없

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질의…….

발언통지를 내분대로 세분을 다하고난 다음에 나와서 시장이 답변하면 그걸로 만족한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먼저 선행되는 안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그방향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없습니까」 하는이 있음)

○의장 한상기; 김재순의원 다음질의 해주세요.

○김재순 의원; 시정연설 유인물 14페이지 예 「시자체에 효율을 거둘수 있는 절묘한 시책과 고도의 기술적 해결을 모색하지않으면 안될것으로 알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의에 있어서는 시자체의 강도적인 행위가 무엇이였든가?

둘째로 절묘한 시책과 고도의 기술적 해결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9페이지에 2천개의 보안등 신설에 대한 것에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2천개의 보안등을 94년도에 또 증설해가지고 그야말로 야간에 암흑한 그 모든 참 곤란을 갖다가 해결할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전에 조금 우리가 설명해가지면서 시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보안등은 몇천개 증설을 했지 시민이 낸 세금을 결국 경전에 다가 헌납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실정을알고 시장이 그런시정방침을 세웠는가?

그이유로서는 현재 9천여개의 보안등이 실지로 2천개도 나

는 쓰혀있지 않았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료 지불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불을 켜든 안켜든 경전에 또박또박 내고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요입니다.

과출소나 어디에서 입회하에서 조금씩 추궁을 한다면은 이것이 엉터리 답변일것이고 시에서는 만역에 가까운 보안등에 대한 전등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나는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켜지지않는 전등료를 왜내고 있느냐 또 전등을 가설하고 할지라도 밤에 껌벅껌벅 잘 켜지지않는 이것을 시장이 잘 알텐데도 불구하고 있는전등을 좀 잘 달라고한 생각은 제외하고서도 2천개를 샀다가 더 가설한다는 것은 경전에다가 2천개값을 사전에 주는 시책이 아닌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저번에 바로 이자리에서 증언하기를 도적질한 재원 100억은 다찾을수가있다.

꼭 찾겠습니다.

수백명 방청객앞에서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김시장이 취임해서 취임한지 참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도둑맞은 그 재원을 찾겠습니다.

하는것을 확실히 증언하고 꼭 찾겠오 하고 여기에서 주먹을쥐고 그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찾겠다는 그증언을 94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몇분지일이라도 실제로 받을수있는 금액을 세입으로 삼어가지고서 잡을 용의가있는가? 없는가? 또 그다음에 수도행정에있어서 조례를 무시하고 사용료를 몇배씩 인정부과해서 그금액이 부시장취임한후로 3·4개월 동안 얼마나되며 그돈을 즉시 환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10월달에 당시 임흥순 시장이 1개월동안 인정부과한 금액이 약7천여만원 이것을 시정감사 때에 적발해가지고 임흥순시장에게 추궁한 결과…….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다음 달에 전부를 현금으로 낸 실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조례를 무시하고 인정부과한…….

부과해서 징수한 수도 사용료를 즉각 현금으로 환부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만일 즉각 현금으로서 환부를하지 않는다면 만일 수도사용료 불납을 할적에는 시장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다음 건설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60프로 이상 책정되는 금액은 나는 60프로를 가지고서 고집하는것이 아니라 물론 감독의 소홀하고 혹은 자재사용에 있어서 그만…….

모든 것이 있을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과거의 60프로 이상이 부정이 있다고하면 그시민이 내놓은 예산을보면 과거와 조금치도 다름이없는 단가니 말로만 부정이라고 했지 왜 예산면에 반영시키지 않았는가?

한가지 예로서 100여건수에 비추어 변동이없고 또한 단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건설부문에 있어서 작년보다 몇할이 비싼 단가가 있으니 시장이 시정연설한 그방침과 예산에대한 상위되는점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있어서 이답변에 있어서는 나는 신임시장에게 일일이 답변을 구하지않고 물론 보조기관인 국과장 계장도 좋겠습니다만 이부정의 소굴이고 시정연설에서 강도적인 문구를 쓴 강도적인 행위가있다는 이행위운운은 이시정연설은 김시장의 그 의사를 존중해서 나는 이번 이 답변만은 시장자신이 꼭 답변을 해 달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아까 심상준의원께서도 여기에 말씀을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회에서는 인간문제에 있어서는 타치할 문제도 아닙니다마는 강도적인 행위를 한 공무원 또한 사표를 내지않으면 안될 그 국과장의 그 공무원들을 생각해볼때에 앞으로는 절대저는 믿을수없는 사람의 증언을 드릴수없다는 이러한 의미하에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답변을 들은뒤에 제가 물은 거기에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 또 보충질의를 할것을 의장에게 부탁드리면서 나는 그만 하단하겠습니다.

○의장 한상기; 저……. 그러면 지금 정책질의를 한번 더하시야 답변을 할텐데 질의하실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문학우의원 나오세요.

○문학우 의원; 단기4294년도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수반되는 정책질의에 있어서 몇가지 신임민선시장께 확실한 정책면에 결부되는말을듣고 그답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시민이 기대하는바를 시행되어 질것인가? 하고있습니다.

첫째 현하 전력사정이 정도로 나쁜데 물론 전력문제는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주로했기때문에 경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에있어서 집행부 자체가 이전력문제를 등한시한다는것은 행정의결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난 해결에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서울시가 소비하고있는 전력을 자체발전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서울시가 일반차입이라도 해서 광장리 라든가 중요한 수

도시설에 대해 자가발전을시키고 경전에게서 받는 그전기를 일반시민에게 돌렸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에대하는 전력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고있는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약100억을 가지며는 화력 발전소 하나를 광나루 라든가 어디다고 둘수있다.

이렇게보고있어요. 그렇다고하면 서울시가 화력 발전소하나를 확보함으로써 경전에게 주는 전기요금 이것을 자체의 수입에서 해결될수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10억이라고하는 돈을 차입을해서 발전소를 가진다고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전력난에 부디치지않을께고 시민은 시민대로 이나머지 전력에대한 혜택을 받으리라 이렇게 보고있는것입니다.

조금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보안등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전력에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지없는 대낮에 켜가지고있다 이말이에요. 이결국 경전의 무성의와 서울시 당국의 시설의 불비 이 두가지로 오는 결과로해서 야간의 보안등은 구경할래야 구경할수 없고 대낮에 켜가지고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서울시가 발전소를 가진다고하면 「스위치」 하나로서 전체 서울시내에대한 보안등켰다 켜다 할수있는 시설을 가출수있다.

이렇게 보고있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등등으로 미루어봐서 94년도에는 좀 더 시민이기대하는 방향으로서울시 자체에 대한 화력발전소를 갖일수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이있는 사실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의 근본적인 교양부족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시자체나 또는 시민전체가 다 느끼고있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믿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교양을 좀더 가지기위해서 좀더 공무원으로 하여금 알아서 시행정을 개혁하기위해서 공무원훈련원을 둔다 이런 정책이 나와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공무원 훈련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의 서울특별시 산하에서 가지고있는 각사업기관중에 폐쇄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소를 폐쇄한다고하면 구지 탄돈을 들여서 공무원 훈련원을 만들지않드라도 그 건물을 전용해서 유효적절하게 쓸수있다 이겁니다.

구지 새로운돈을 들여서 가지고 자꾸 확장만 시킬것이 아니라 현재에 시설해놓은것만이라도 우리가 운영난에 부딪치고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자꾸 느러한 놓지말고 느러놓았던 이 사실을 결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보지 이말이에요.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이 공무원 훈련원을 새로 짓는데 투자를 하지말고 현재종로에 자리잡고있는 중부병원 이건 옛날에 순화병원입니다.

이것 지금 중부병원을 운영하기위해서 약10억환의 세제가 많은소비가 되는데 우리가 시민에게 있어서 받아가지고 시민에게 혜택을주는 시책을했으면 그마만큼 시민이받은 복지행정이 와야되는데 이 중부병원만은 어떻게 된것인지 서울시민.....

6개 병원 가운데에서 가장 인기가 나쁘고 환자가없고 그반면에 예산은예산대로 막대한 소비를하고있다이것입니다.

심지어는 환자 하나를 입원킬려면 세시간 내지 다섯시간이

결린다말이에요.

아침 아홉시에 환자가 가가지고있다가 특진자증명을 갖추어서 나 이러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입원하러왔소 하며는 좀 앉어 기다리시요…….

그 추운 복도에 하루 온종일 세워놓고 원장은 원장대로 자기불일 보러다니고 과장은 과장대로 자기할일하고 또 주치의는 주치의대로 나는 모르오…….

그리고 팽겨쳐두고 오후9시 시간이되면 그데로 그환자를 돌려보낸다 그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아야 될사람이 동회에가서 애걸복걸해 가지고 특진장 한장을 떼어가지고 일매의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 뛰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서울시민에게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한다 이런말이에요. 이거 이런병원은 필요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김상돈시장께서 암행어사를 출동시켜봐라 그말이에요.

만일 이러한 실정이 한건이라도 적발된다고하면 이중부병원은 연간1억환이라는 돈을 소비할 필요성이 없다 말입니다.

또 실지로 종로구에에 위치하고있기때문에 이 사정을 내가 잘알고있습니다.

중부병원이 존재야말로 이서울시 예산의 가장 줌을 많이먹고 암적존재라고 아니할수없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중부병원을 유효적절히 쓰기위해서 공무원 훈련소로 전용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설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이미 우리보담도 신임 김상돈시장은 더잘 아시고 빠져리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개인소유 가옥의 3분의1이 전부도시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나가다가는 서울시내 한복판이 원간에 쑥밭되고 맙니다.

이거 새로 띄 세워놓고서는 5년후에 할것인지 10년후에 할것인지 팔어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말었다 이말이에요.

엄연히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책임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백년대계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원칙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로 인해서 시민이 받은 피해가 얼마나 많다는것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김시장은 더잘알고 있을것이라고 믿고있는것이올시다.

그러기때문에 이 도시계획설의 구역분포는 어떻게 하느냐 내생각으로서는 관리주의 계획주의 이두가지로 나가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나는 보고있는것입니다.

이 관리주의라고 하는것은 소위 도심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 하나도 지금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기존도로 하나를 관리못하는 서울시가 더퍼놓고 방사식 바둑판식으로 줄만 그어왔다.

계획주의라고 하는것은 신년도 시주변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도로부터 내놓고 그도로를 내놓은선상에는 그집이 하나라도 이러서게 만들어 놔야지 집도면을보면 적어도 선을 쑥 그어놨는데 어느게 집이 들어섰는지 무허가 집이 들어앉았다 이말이에요. 한채 두채 들어스고나면 1년동안에는 수백

호가 그곳을 점령해가지고 다시 철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현재 서울시내의 도시계획도상에 나타났다고 그말이에요……. 그러기때문에 신임시장은 과거에 책정해왔던 도시계획사업을 재검토하여 재검토하는 반면에 서울시민이 받는 기회를 최소한도로 막을 방안을 강구하고있는지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도심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의로 나가고 변두리에 대해서는 계획주의로 나가는 이런 정책을 채택해줄 용의를 가지고계신지 여기에 결부되어서 공원에정지나 녹지대 이것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더퍼놓고 남의산에다가 공원지다 딱 해놓고 이걸 팔아먹지도 못하게 이거 어디 경우냐 말이에요. 그러니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하는 용의를 가지고 계신다고하며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을해서 김시장임기 4년동안에 그야말로 서울시민이 환영할수있는 도시계획을 할수있는가 정책의 변경을 가져올것인가?

여기에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뒷골목 포장을 하기 위해서 1억4천여만환을 책정을 했다. 이것 뒷골목 포장을 해준다니 뒷골목에사는 이사람 반갑고 고맙습니다마는 여지껏 이 뒷골목 포장해준다고 해마다 예산 책정을 했는데 실지 기골목 포장 몇개나 했습니까?

나 이것부터 묻고싶어요.

뒷골목 포장비가 엄연히 나와가지고 있는데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5할을 부담해주시요.

이러고 나온다 그말이에요. 내 한가지 예를 들어서말씀 드리면 신문로 2가1번지 거기에 1·2분기 호별세가 1천4백만환 내지 1천5백만환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간이포장하는데 얼마 드느냐하면 1천1백만환들면되

요. 이것을 4년전부터 포장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받는세금은 무려내가 시의원에 나온뒤에 7억7천만원이라는 세금을 받아 들여놓고 단돈 한푼을 주지않았어요. 그래 포장을 해주시요 하니까 5할 부담을 해주시요 한구역내에서 적어도 7천만원의 시세를 받았으면 다만 1할이라도 그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가지고 판매 써버리고 그런데다가 혜택을 줌 주시요 하니 또 5할을 부담해라 이것 수익자 부담이라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5할부담을 하라고하는 이사실을 하라고하는 이사실을 내 부인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놓고……. 받아라 그말이에요 해놓고 해놓지도않고 돈을내라고 하니까 겁을집어먹고 돈 안내는것입니다.

어떠한일이 있드라도 일단 도로포장에 대한것은 일을 좀 해놓고 세금을 받아야해요.

서울시가 좋은 성적으로 징수하려면 어떻게하든지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고서 달래놓고 받아야지 더퍼놓고 돈을 부담해라 이것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1억4천만원의 뒷골목 포장비는 계상할것 아니라 도심지대에 대해서 뒷골목 포장을 전반적으로 해놓고 징수할수있는 방향으로 김시장은 정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것인지?

그다음에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4년전부터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게 아마 금년내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어디서 나온얘기인지 허무맹랑한 얘기가 엉뚱한 얘기가 났다말이에요.

이 청계천 복개공사한 그위에 점포를 짓는다 과거에 자유

당 정권하에서 우리가 듣기를 이정재가 거기를 영화관을 만들겠다고 설계를해가지고 훌륭한 설계도를 갖다가 건설국에다가 붙여놓은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결사반대 했어요.

점포를 짓겠다는 이유가 50미터 계획도로에 60미터 도로가 났으니 이 나머지 10미터에 점포를지어도 되지않느냐 이런 논법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것 언어도단이에요. 왜 그러나 도시발전이라고 하는것은 사회발전에따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50미터인 이도로가 현재 교통량을 소화시키는데 알맞다고 하면 이것이 5년이나 10년후에는 또고쳐야 될거예요. 그때에는 이 50미터 도로가 70미터 내지 100미터로 늘여야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점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내에 일부 상인들간에는 여기에대한 기금까지 각출하고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서울시가 35억환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훌륭한 간선도로하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기 도로를 시민이 유효적절하게 쓰고 교통에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도로행정을 해주어야지 이것을 서울시가 여기에대한 점포를 짓는다 짓도록 허가하겠다 이러한말이 어디서 어느기관에서 새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사실이 유통되어가지고 일부 여기에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시장께서는 청계천 복개공사를한 이도로위에다가 점포거나 본점포간에 이것을 대부분 주어서 상행위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계신지 만일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없다고하는 단정을 여기에서 내려주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과잉징수문제인데 이것 아까 김재순 의원이 잠깐 비친 문제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했기때 문에 제가 잠깐 부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걸로 기억하는데 초대시의회 임기만료전에 8월9일날 각 일간신문지상에 그당시에 서울특별시직무대리 정종철 부시장께서 신문에 광고를 내기를 수도요금을 과중부과를 시킬테니 시민여러분은 여기에 많은 협조를해주셔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요하는 광고가났던것입니다.

그래 본의원이 광고를 가지고 이 본회의석상에서 추궁을 했습니다.

언제 수도요금 징수조례를 개정했느냐 근본요금이 있는데 그 기본요금을 가지고 과거와같이 부과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광고란을 검토를 해본다고하면 더 부과를 시키는 결과 밖에 안되니 더 부과를 시킨다는것은 수도요금 징수조례를 개정을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답변을 해주시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과거에 체납된것을 받는데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 기본요금을 인상시키거나 수도요금을 더 인상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는것을 8월12일날 분명히 이자리에서 언명을해서 그것이 8월12일날 속기록에 있을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계속되어가지고 김주홍부시장시대를 거쳐가지고 김상돈시장이 부임한 오늘날까지 그대로 과잉징수가 되고있다 이말이에요.

내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여기에 수도과장이나 건설국장이 계시지만 3만3천9백환 부담하던 영업용 수도요금에 일약 3십4만4천환이 늘었습니다.

무려 10배입니다.

이것 더욱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중조정 이중부과 정실 계수의 잘못 이런걸로 기인해가지고 3만3천9백환 짜리 수도요금이 일약 한달동안에 3십4만4천환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것을 간신히 사정사정해가지고 조절이 되어설랑 4만9천환인가 8천환이 떨어지기는 떨어졌읍니다마는 이게 불과 한예를 들어서 내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도요금이 3배내지 5배를 강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수자가 내가추상적으로 알기에는 약 2억환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그러니 이수도요금 과잉징수가 어떠한 근거를 두어가지고 이러한 요금을 징수하느냐? 이 징수한 액수가 만일이 징수가 부당징수가 부당징수라고 하는 단정을 김시장이 내린다고하면 조속히 시장에게 환원시켜야 될것입니다.

환원조처 여하…….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청소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과거 경찰에서 쓰레기나 인분을 수거해 갈적에 비난이 굉장히 많었습니다.

그때에는 시민들이 비난하기를 저 경찰의 힘을 믿고 저런 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이 4·19이후 제2공화국이 탄생됨으로서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청소행정을 취급하고있는데 과거 경찰만능시대적에 청소행정을 했을때에 그러한 비난을 받았다고하면 이제 서울시가 경영하는 이 청소작업은 좀더 그 본질에 입각해서 시민에대한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될것이고 과거에 비난받았던 여러점이 시정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자가아니라 이 청소작업권이 보건사회부에 이양되자마자 시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난의 원인을 김시장은 아시는지 이 청소행정자체가 시민복지에 근본을 두어가지고하는 행정이나 그렇지않으면 실업자 구제라는 목적으로 어떠한 청소인부를 구제하기위한 행정이나?

나 이것 단정해서 묻고싶습니다.

이것 큰일났어요.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처가는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그대로 가로에 뿌리고 댕겨요.

내가 지난번에 관할구청에가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 좀더 과학적인 방면으로 사회국이 연구를 해주시지않으면 앞으로 청소행정은 시민의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이 사실을 집행부의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것입니다.

또 지금 인분 한지개에 60환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있지만 이것 실지 한 200환 가까이 되고있읍니다.

또 이 200환된다고 하드래도 저지대 얘기에요. 높은데 올라가 보세요 가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굉장한 요금을 달라고 이래가지고 그위에서 오물이 흘러내려서 저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현상을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있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연발되느냐?

주무부인 사회국이 청소행정에대한 근본적인 과학적인 검토를 하지않기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말이에요. 여기에대해서 신임시장께서는 이 청소행정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을해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할것인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으로 지금 서울시민 가운데서 집이있는 사람은 두채에서 세채 또는 열채 스무채가진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집이없는사람은 그야말로 뭉한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주택난이 굉장히심한 데 주택난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시유지를 과감히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때문에 내가 이런말씀을 드린것입니다.

4월혁명전에도 그랬읍니다마는 4월혁명이후 서울시주변에 있는 이 국유지나 시유지의 현상을 보십시오. 밭들여놓을 틈이없어요. 경찰의 무능취체당국의 무능 여러가지 조건에 기인해가지고 지금 시유권지 국유지에 밭들여놓을 틈없이 전부 무허가 건축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없는사람이 판자집이나 천막집한채 지었다고 하는것은 우리가 동정을하고 現解할수있고 어디까지나 그분의 생활면을 도와줄수있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훌륭한 양옥집을 두채 세채 지어가지고 집장사를하고 있는 이실정을 김시장이 파악을 하실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홍제동 장지장을 가보십시오.

한사람이 수천평을 점령해가지고 같은 양식의 집을지어가지고 한채에 수백만원씩 팔어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 특수 독점가들때문에 실지 집이없는 영세시민

은 요 한평의 시유지나마 혜택을 못보고있는 이러한 현상에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로서는 신임 김시장은 과감한 시책으로는 서울시가 가지고있는 전체의 시유지를 개방을해서 집없는사람의 실태를 조사를해서 그사람들에게 열평내지 열다섯평의 대지를 년부분양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생활범도에 넘치않는 범위내에서 주택을 건설에 가지고 주택난을 해결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수있는 이러한 과감한 시책을 강구할 용의를 가지고계신지 이정책을 단행한다고하면 일석이조에 이익이 온다고 그렇게보고있습니다.

시유지를 지금 찾을래야 찾을도리가 없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년부분양을한다고하면 시세입에 증가가 오는동시에 집없는사람들에대한 주택난이 해결되리라고 보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과감한 시책을 단행함으로서 주택난은 해결시킬방법을 아니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것 저 부시장이 사시는 근방에는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종로중구에 사는사람들 큰일났습니다.

사창굴이 주택가를 침범을해요 이자녀교육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것입니다.

경찰국장이 계시지만 이것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것 이대로 두었다가는 여염집이 갈보집으로 오인을 받게가지고 딸자식 못기를 것입니다.

사창굴에대한 대책을 어떻게하겠느냐 이것 내가 막연히 사창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하겠소? 하면 김시장 답변하기 곤란할것입니다마는 한가지 방안을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하

면 능히 실현할수있는 방안이 있다그것이예요.

나 아직 외국을 못가본 사람입니다마는 듣기에는 일본동경에서도 이사창굴을 집단수용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근교에다가 시유지를 확보를해서 이사사람들을 특수한지대를 만들어서 집단수용을해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능히 도심지에있는 사창굴 팽창을 방지할수가있다 보고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고하니 소위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들이 대개 생활난때문에 이것을하고있는데 이것은 포주들에게 몸을팔아서 몸을맡겨서 자기수입의 얼마를 그들에게 주고있습니다.

실지 이사사람들의 수입이 얼마안되는것으로 그사람들이 처참한 생활을하고 있는데 경찰과 협조를 해서 이 창녀에대한 분포도를 완전히 작성을해야 되는것입니다.

한사람의 창녀가 주택지에 배겨있다 하더라도 경찰은 그 실태를 완전한 파악을 할만큼 세밀한 조사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학교 주변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이 학교주변에 집결되어있는 이 창녀들을 이동시키는데 우선 서울시가 사회정책으로서 여기에대한 커다란 예산을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확보해가지고 가까운 근교에다가 집단수용을할수있는 어떠한 건물을 마련해가지고 그안에다가 직업보도소를 만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을 채득할때까지는 식생활에대한 문제가 올것입니다.

일단 수용을해놓은 다음에 밖으로 나오지못하게 감시를하고 자기가 과거에 하던 영업은 영업대로 하도록 이것을 문호를 개방해 주어야 되는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업보도를 시켜라 이래가지고 어느시

대에 가가지고 자기가 채득한 기술을 바깥에 나가서 발휘할 수있을때 까지는 내보내라 이러한 과감한 사회시책을 단행해야지 이거 사창굴때문에 시끄럽다 창녀교육을 못하겠다 이거 말로만 떠들고 신문지상에만 나타나도 소용없는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창굴에 대한 문제는 김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서 해결을해 보실것인지 이것이 지극히 웃으운 얘기이면서도 여자를 기르고있는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문제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데……. 끝으로 시민회관 소위 과거의 우남회관 여기에대한 공사비로서 2억환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물론 신임시장이 갈려가지고 그후에 모든사회 정세가 완전히 변천이 되었기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가 왔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알고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남회관 예산은 단기4293년도로서 주지않겠다고 하는 약속이되어 가지고있어요.

이 약속은 누구보담도 김주홍 부시장이 더 잘알것입니다.

그런약속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시민회관의 건축완성을 시켜야 될태니 2억환을 책정해다오 이렇게 예산요구가 왔는데 그때에 시의회에대해서 다시 예산요구를 안하겠소 하는 약속의 원인이 있어요.

2억5천만환이라는 돈이 민간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성회인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찬조비로 되어있습니다.

건립위원회에서 각출해놓은 찬조비가 2억5천만환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지고있느냐 하면은 한국은행에 가지고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남회관예산은 건립위원회가 가지고있는

이 2억5천만원으로 충당시킬터이니 93년도에는 1억5천만원의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다시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되어있는것이예요. 그 돈이 어디에있느냐 했더니 한국은행에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주홍 부시장 알고 있을것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립위원회 2억5천만원은 어디로 갔는지 다졌는지 의회가 모르고 있는데 93년도예산을 제출할적에 그러한 약속이 엄격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시민회관에대한 건축비로서 2억환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이사실은 우리가 불적에 의아심을 가지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우남회관건축문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있는 김상돈시장이기때문에 나는 이 예산 2억환은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않었나 이렇게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열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한상기; 다음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세요.

○시장 김상돈; 대단히 시정에 적극적인 건설적인 의미에서 물어주신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 세분이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흡족한 답변일지 몰라 그러되 미비하나마 답변드림을 양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심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에있어서 그수차에 걸쳐서 말이 되었고 신문지상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오늘날의 실지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의도의 질문이신듯한데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응당 의례적으로 있어서 있을 것으로 생각을해서 말씀한것이 옳시다.

한까닭에 그 의례적인데 의해서 제가 말씀한데대해서 부시

장이하 국과장이 대면 대는것이고 안대면 내가 무슨 강요라든가 기타 무슨방법 수단을 가려서 욱할 그런사람이 아니올시다.

까닭에 시종일관 드리는말씀은 제가 잘몰라 그러는지 몰라 그러되 일제일정때에도 통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다고하면 거룩한 4·19라는 혁명의 엄격한 과업이 지나간이후 김상돈이 자연인은 변변치 못할망정 초대 민선시장이라는 사람이된이후에 적어도 수도 서울의 고급공무원으로서는 그만한 의례적인것을 알것이고 고로 그렇게하지 않을것인가? 이렇게 말씀올린것이 올시다.

개중에는 제가 잠깐 말씀 올렸거니와 김주홍 부시장 여기에 총리가 임명할때에 내적으로 저도 동의한 사람의 하나 올시다.

그렇다면 기개월동안은 부시장으로 수고하는동안에 용서 못할 죄악이 있다고 하면 별문제로되 혹 客的 풍설로 이려고 저려고 할애기가 있을른지 몰라 그러되 제가 아는바로는 없습니다.

까닭에 그대로 지지하고싶은 감이있습니다.

그렇거니와 소위 의례적이라는 의도에있어서 심지어는 내가 동의를했던 사람까지로되 당연히 내야 한다는것을 의미해서 부시장이하 각 국과장이라고 하니까 그쯤 아시고서 이 점에있어서 그이상 불법무법을 강행한다든지 남의 공무원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의사는없다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니까 그런점에 너무 심려마시기를 마라마지않어요.

다음에 65푸로 운운한데 대해서 증거여하 그거야 무슨 심지어는 1심 2심 3심까지 판결받지않은 그런사실을 가지고서 혹은 또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더구나 60푸로 내지 65푸로의

그 수자적인 증거여하 하는데 대해서 무던히 답변하기를 곤란합니다마는 이미 어느정도 가까운 일례로 있는것같아서 한가지만은 잠깐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제2 마장장 가설공사에 있어서 입찰 년월일이 4293년12월 20일인데 예정가격은 천백4십만환데 낙찰가격이 얼마인고하니 4백2십5만환이 올시다.

그러니 이것이 차인 얼마가 남은고하니 63푸로인 7백15만환이 남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액보다는 낙찰액의 차인잔고로 보아서는 7백15만환이 남었다고하면은 여기공사 시멘트 자갈 등의 가격이 이려고 저려고 할것같으면 60푸로라는것은 오히려 축소보고드린것이 올시다.

이미 기술적여하에 따라서 70푸로 80푸로 거이 통으로먹는 지경까지에 갔다고해도 과언이 아닐만한 여기에 수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지극히 적은 실례로 불과할것이로되 이하나를 미루어보아서 어느정도 있다고 단정이되어서 말씀이지.....

명칭은 제2마장교 가설공사인데 입찰년월일이 4293년도 12월20일 예산가격은 천백4십만환입니다.

그다음에 낙찰가격은 4백2십5만환이 되어서 즉 낙찰액은 37푸로로 되었고 남은 63푸로해서 7백15만환이 남았습니다.

하니까 이 당장 들어난 수자만도 2푸로없는 63푸로가 차질이 되었고 여기에 세맨이요 뭐요 하는 것은 적당히 지능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65푸로 커냥 75푸로 이상이 될지도 모르니까 현명하신 제의원께서 이정도 이쯤 양찰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재순의원께서 14페이지 39페이지 100억환 부정 운운에 대해서 이제 세입으로 잡을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그문제를 이거 사소한 문제인 까닭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미비한점은 나중에 해당 국과장에게 문의하시도록 해 주시고 말씀한 의도만은 내가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시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 100억 운운한것도 오늘의 이100억이라는 수자가 꼭 정확한 수자인가하는것을 꼭 받아 드릴수있는 확신이 아니라 이런대로 볼때에 수십억 나간다고 할것같으면 100억까지에도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것이고 이렇다면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기관까지라도 총동원 協勢를 해 가지고 서라도요 100억이라는 급기야는 단 1억환 수십억이 될른지몰라 그러되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만 죄짜는것보담에 이런것도 우리가 이한모통이 말아서 우리가스고 시민한테 보고할때에 우리를 위한 시민들은 쾌재를 부르지않느냐 이런의도에서 말씀드린거여요.

너무 세밀한 수자적인것에는 언급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에 있어서 이를테면 부정당 하니 너무 과도히 받으드리신 이런 문제도 내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부정 불법이 받았다고 하면은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당연히 그것은 환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부정으로서 되었다고 하면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시민에게 우리가 저무도록 이러한 공사를 모의해서 피해를 준것을 규탄 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와는 달라 그러치 그것은 당연히 반환하겠지요.

하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해당부처에게 묻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60푸로를 예산면에 반영할수있느냐 아까 말씀이니까 그대로 더 답변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강도적 행위라든 그 술어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 처음 기초해온 그 원고지를 보면은 수수하니 좋은술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한것을 제가 보고서 그것을 짹 짹 고서 이 강도적행위라는 술어를 제가 넣었습니다.

한것을 당장에 문자의 표현처럼 총검을 들고 누구를 때리고 생명을 빼어서 그런행위의 강도적 행위가 아니라 이런것 저런것을 볼때에 그 심정에 떠오르는행위가 총검 들고 당장에 연상때리면 생명 빼어서 강도가 아니라 특히 임서울시장이 재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몇몇씩 뽑아서 척척 이렇게 쓰고 이것 강도보담 더합니다.

술어의 표현이 이상이었다고하면 그 이상의 술어를 쓸지언정 이 강도적 술어가 약하다고 보이지만 의도는 그런 의미에서 쓴것이니까 양찰해주시고.....

그러면 김재순의원의 답변 그만큼 말씀드리고

셋째로 문학우의원 특히 건설적인 의미에서 세밀한 연구를 하시고서 각양 각부문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94년도 전기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상공부랄까 여기에 경전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체로서 해결할 용의가없느냐 그거 절대 동감이고 그럴 의도를가지고 있어서 저번 선거때 연설때도 득표얻기위해서 가 아니라 심정이 그런심정에서 그런 연설까지 했습니다.

해서 심지어는 금년 늦인봄 초여름 중여름까지 가면은 상공부랄까 경전이랄까에 있어서 들어나는 증강 발전량에있어

서도 어느정도 해결이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만은 그전체를 다루는 정부나 경전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아닌게 아니라 시 자체로서는 이것을 증강발전이랄까 와서는 우선 우리살림을 우리가 해결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10억이 될른지 그전후의 금액이될른지 몰라 걱정인데 걱정하는 그 금액은 여러분과 타협을해서 생각을하는 방향으로 토론도해볼 문제의 하나겠고 한편 어느 외국 상사에서 이것은 비공식 순전히 개인적으로 얘기입니다.

네가 만일 시장된다고 하면은 서울시의 전기난이 극도의 문제인 것은 우리는 잘 알고있다해서 또 시에돈도 없는것잘 알고 하는데 현금으로하자면 어려울테니까 어떤 의미에 좀 외상 거래라도해서 협조하는 의미에서도 상의할 용의도있다는 소리가 없지않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지금 언급할때는 아니예요. 좀더 두고 시기를할 얘기이고 또 만약에 거시기 한다면 시민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면으로서 연구상의한후에 말이지 내 단독무엇이라 할수가없다.

이제 그런얘기를 했으니 만큼 그거 대단히 좋은 의사예요. 대단히 옹습니다.

동감이올시다 하니까 자연 혜택에 경전이랄까 정부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된다고 가정을해서도 그것은 좀더 일반 전국에 뿔절된 전기의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할 생각인데 수도 서울인만큼 자체로 있어서에 한 3·4만키로만 증발이된다면 해결할수있으니까 우리 좀더 공식적인 구수회의라도 해서 자체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절대 동감이 올시다.

그다음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보안등 등등도 마찬가지로의

부수 해결이 되리라고해서 더이상의 언급은 안하고서 그만  
끝이겠습니다.

그다음이 시공무원교양 문제에있어서 이거 교양은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선에 막대한자금을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규모  
있게하는 것은 금상첨화로 근본적인 까닭에 더좋은 일이로되  
저우선에 응급책으로 이렇게 생각을해보았습니다.

예산이나 통과가 되고 내부의 안정이나 되게되면 말이에요.  
이시회의 이 다행히 있는만큼 이보통 시출동시간이 9시인 까  
닭에 한주일에한번 혹은두번 이래서 8시쯤 한시간 땡겨서라도  
해서 소위 이상에 본청에 시장이하 계장 과장 국장 또혹은  
여기 장소 면적 인원 관계를 제가잘모르는 까닭에 그렇게 분  
류하든가 그다음에 제2단계로는 각구의 구청 계과장 이렇게  
해서 라므니 구분을 한다든가 해서하고 또그다음에 할수있으  
면 전직원을 이제이렇게 점차적으로 1회2회3회랄까 그이제  
인원과 여기에 수용장소 관계든지 그건인제 수자적문제니까  
별문제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우선에 이사회 명사 각계  
각층의 참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덕망으로 모든면에 있어서  
우리가 덕이 되고 본이되고 그말은데까지는 혹은 듣고 안듣  
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되 손색이 없을만한 이들을 모셔다말  
입니다.

참 속되게 말하면 스승강화라고할까 이러해서 그과거에 자  
기도 부지중에 그이제그부재 그못된면이 마음가운데 아직도  
있다고하면 이것을 그렇게해서 응급적인 치료방식과 같이 해  
서라도 어디쯤 교양에 힘써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이제지극히 소극적이요 陰極的에 불과한것  
인데 오늘에 다행히 선견력을 가지고서 시자체가 이러한 예

산 이러한 시설 이러한 규모있는 윤곽을 지어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는데는 대단히 찬의를 표하고 절대적인 동감이 올시다.

그러나 이제 문의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없는시장이 출혈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1억4천만환입니다.

1억4천만씩의 시비를 들이면서 시설을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하는것은 절대한 동감이올시다.

뭐하필에 이문제만이 아니고 보통 제가 국회에있을때도 가보면 군대방면에 기타방면에 그굉장한 아성같은 전당들을 신설하는것을 볼때 좋기는좋지만 그개인으로 볼때문 무슨 생산공장이요 기타면 몰라그러되 오늘에 관청이나 공무원 기타의것은 좀더 내핍적인 의도에서 이결참고 다른면에 영리적해서 다니는 한5년이나 10년후에 하는게 어떠냐하는 그런감을 가졌던 까닭에 오늘에 적다면 적거니와 우리살림에 비해서 1억4천만환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신설 한다는데에는 저도 많은 유감을 느끼고 그 草案에대해서 딱 중지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엇그저께 되자마자 의례히 질문해 오는것을 아지도못하고 너무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것같해서 우선 그렇게 됐읍니다.

허나 실지이제봐 보아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드라도 가능한 이용처가있고 또안쓰고도 될수있다면 그예산보류해도되고 다른데 다시 좋은 이용해도 좋을터이니까 뭐 구태여 이것을 기여히 한다는 의도는 없고 그의도에는 절대동감이올시다.

허나 여기중부병원을 대신 쓰자는데 있어서 그불친절이나 비효과적으로 한다는데는 차라리 폐쇄하고라도 이것을 대응하는게 좋지않느냐하는 그의도는 동감이되 그렇다고해서 말입니다.

그 우리가 자동차를 타자면 편하고 좋아 그러되 그놈때문에 인명이 살생이 나고 병신이 되고 하니 집어칠수 없지않읍니까 주의하고 조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현대 문명기계를 그대로 이용해야 할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용하고 운영하는데는 참 눈꼴시고 심지어는 폐지까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리만큼 됐다는점은 지극히 유감천만이로되 바라건대는 과거는 몰라그러되 금후에는 여기에 책임자를 독려하고 저도 착실한감독을해서 이병원의 사명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해볼려고 합니다.

하니깐 이것을 폐지해서 대응하자는데는 그의도를 이해할수있고 찬성할수도 있겠으나 근본성격상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폐지해가지고 여기다가 공무원 교양소로 쓴다는데는 좀 재고가 필요치 않을까 그런감이있고 또하나는 이제 잠깐들으매 전문적견지로 보아서 이것이 보통 각과에 걸치는 환자를 취급하는 병원이라면 문제아니겠는데 일종의정신병자를 취급하고있어요.

이정정 합니다.

전염병환자를 취급하는 까닭에 일반환자를 취급하는데 극히 위반이라는 설이 그것도 좀 아마 어색히 들릴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니깐 마 여하튼 이것은 시정해서 이사명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달리 이막대한 자금을 안쓰고도 이용할 길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여간 지금까지 운영상부족했다고해서 그것을 당장 폐쇄한다는것은 그기관의 사명상으로 보아서의 나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다음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괜히 현재좋은 그것을 소

화치 못하는 자체에 미래에 어느때 어떤 모양이 있을지도 모르는것을 가지고 도로계획설이니무어니 해가지고 설라니는 남의집 병신을 남의 재산을 병신을 만들어서 저당을 내먹을래도 내먹을수 없고 또 팔아 먹을래니까 혈가가되고 반신불수 취급받는데 그런국민의 피해를 입혀서야 되겠느냐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동감이올시다.

고로 지금 여기에있어서 그거 무슨 간단한 일답으로서될 문제가 아니니만큼 문의원이 질문하신거와같은 저도 소위 시장의 일인으로서 그런 피해를 입고 남의 사정도 들었던 까닭에 절대한 동감이로되 어떻게 해야겠다고 묘안을 일언에 답변하기도 어렵거니와 요컨데 이거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이유는 구태여 그미비한 피해와 국민의 재산을 손실시키면서 그러한 이제 소극적인면을 하기보다는 이점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필 도시계획 문제만이 아니고 가령말하면 구제사업문제 사공사업 이라든지 기타 건설사업이라든지 모든면에 있어서 제야 뭘압니까? 한가답에 그 각지각방면에 전문대가들 경험이 많은 이들을 어떻게 공식 비공식으로 이렇게 좀 모셔가지고 그들의 최대의 지능을 빌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검토를해서 최선의안이 나온다고할때 그 안을 채택해보려고하는 까닭에 이제 이런 명칭밑에서 그간 무용이 장시간에 걸쳐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것을 일소하도록하는 그 제가 요지가 있다고보는 까닭에 우선에 그즈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도심지에 아둥바둥 더 짓지말고 시외에다가서 중점을 두어가지고서 이렇면 어떠냐 하는것은 그 오늘 문학우의원 대단히 좋은 의견일뿐더러 외국에 많이 유람한 참 우

리나라의 우수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중에도 지금 저 뉴델리 거기에 갈것 같으면 그뜻밖에 뉴타운이하나 크게 되어가지고 뉴데리 가보신분은 알거니와 그 뉴델리라는 월도시는 어떤의미에서 우리나라 도시보다 더 주잡하고 복잡하고 그말이 아니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뜯어고치다가는 현웃 이잡기같에서 도리가없다하니까 어느정도의 점진개수를해 나가면서 그적당한 위치에 이제 대폭적 혹은 부분부분이 아주 완전히 신흥도시로 도로하수도 상수도 그무슨 교통이것을 전부완비를 해가지고해서 여기다가 이런것보다도 그쪽으로 이렇게 대구분산이 되게됨에 따라서 교통의 완화 이제 그 시위생의 개선등을 도모하는 실례의 국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들었습니다.

한가답에 이제 말썽한 그공연히 탐내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피해주는것은 재고해야겠고 또 거기까지 안간다고 하드래도 이 既成 좁은데다가서 중점을두고 시간노력 경주를 넣는것보다는 그것도 버릴것은 아니로되 어느정도 하면서 뭐 어디라고 지금 단정할순 없거니와 시에 얼마든지 좋은데 있지않습니까 그런데를 중점적으로해서 자연분산이되고 자연소비가 되도록해서하는 편이 어떨까 그런감이 없지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지요 풍치요 공원이요 해가지고 잔뜩 이런데는 것도 제가 전문가가 못되니만큼 그전문가들과 다시 제가 의논해 볼 용의가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골목의 포장 문제에 있어서 그5%의의 수입금을 내면 해준다. 그런데 이좁은 지역에 2천만환식을 징수해가면서 우선에 좀 외상으로해주고 나중에 납부함이 어떠냐 그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통탄할일은 제가 일본 처음갔던지가 꼭 금년

에 41년이 되는데요. 41년전에 동경하고도 저 시외에 마포에 사는 주변과 같은데가있었습니다.

41년전에 갔는데 그외는 시외지역에 구석까지 뒷골목을 그때 그 아스팔트를 이것을 그때 41년전에 전부 마친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이거 오늘에와서야 간신히 이제 뒷골목 포장을한다하는 문제가 나온것을 생각할때에 이거 참 통탄치않을 도리가없는데 그이제 문학우의원말씀 대로 세금을 안받아 가드래도 시 혹은 정부자체가 척척해주고 혹은 나중에 받으면 좋으렸만 나 이제 그말씀듣고 잠깐 그저 그간에 경험있는분에게 들어보니까 그이론과 기분 감정상으로는 좋은데 사실에 실상 어렵습니다.

좀 强薄하지만 선금을 받아놓고 하기전에는 시수입살림이 대단히 적자가나서 어려운 까닭에 그저 위신상 안되었지만 2천만원이나 그이상을 받으면모르되 받을것은 해나야 시의 실정이 좀 해결이 되지 선심만 써나가다가는 빵구나서 어렵다고 그런이야기를합니다.

하니까 그거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청계천복구공사에 부수되는 그주변에 소위 가점포 이권 운운 문제 어떠니 이거 있을수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거 여기 소위 시장이되기전에도 뭐 굉장히 그런 여론이 있고 10리밖에 사는 시외에있을때도 이거 어떻게 좀 누구에게 소개하고 좀 조언을 해주고 이럴수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무척 있습니다.

그런가 할것같으면 최근 어떤 그혁명 우수한 모기관에서까지 시에졸으고 누구누구한테 졸으다 당하니까 중앙정부까지 원조를 청하는등 그굉장한 운동들이있는 모양인데 이 원칙론

에 입각해서요 있던것을 제거해가지고서 지금확대를 해나가는판인데 약간의 빈틈이있다고해서 거기다가 임시일망정 새로이 빠락이니 점포니 뭐니 해가지고 신설운운하는것은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하니까 그원칙론에 있어서는 더 논할 여지가 없겠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측면으로 듣건대는 그들도 원칙을 절대적 찬동이나 요구하는것은 요컨데 이거 뭘니까 삼희정있는 무슨다리지요 광고다리를 비롯해서 저지금 문제되는 종로4·5가 끝머리에 복개공사된 그쪽과 그쪽을 비교해 본다고하면 거반배의 차가 있다고합니다.

그넓이가 그런까닭에 지극히 무리한 소리로되 어느때든지 뜯으라는 각서밑에서 요주변이 도로교통에 막대한 지장이없는한 약간의 지금까지는 판자로텐트로해서 그무질서하고 보기싫은데 무슨 알미눔으로 서독이니 이런데 가봐도 그런예가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좀 보기에도 경쾌하고 미관상 관찬을만큼 해서 온 6개월후든지 1년후든지 3년후든지 시가 필요할때 뜯으라고할 때 절대적 뜯것을 전제하고서 어떤 보증금이라도 들여놓고서는 할테니 요정도 요것쯤은 당장에 급하지않으니까 혹 어떻겠소하는 이런 의도의 이야기까지 있는모양같으나 아까 말씀한대로 원칙론으로서 이것을 찬성할수없겠고 또 그걸들으며 그냥 할것이 아니라 요 자유당시절에 그것이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매매가 되었답니다.

그거 한자리 확보하는데 그러니 어떤 의미에는 그들의 사유재산권이 거기에 막대히 침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원칙론에 입각해서 시자체가 도로교통을 편리키 위해서 확보한다는데는 이의가 절대로 없지만 이 광고 여기에

비하면 여기에 배나 넓고하니까 그저 민생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미에서 요정도의 미관도 보장하고 교통의 방해도 없고할테니 당분간 좀 벌어들여도 좋다면 어떻겠소 이런이야기들도 없지않아 있는것을 듣고있습니다.

한데 여기이제 지금 어떤 애국단체에서는 도무지 모든 생애문제가 안되니 그것을 우리에게 권리를 주면어떠냐 또 한편에서는 15년전부터 여기에 유권적인 연고자가 있는데 줄테면 우리가 주어야지 850세대라고 합니다.

점포수가……. 그런데 그무슨 혁명단체 그런데는 우리가 차라리 기분 좋게 일시금으로 보조한다든지 달달이 해서 할지언정 기득권이 있는데 다른데와 달라서 무슨 단체 뭐라하드라도 그것은 안된다 그것은 과거에 자유당 시대지 4·19후에 있을수없다는등 여러가지 소리가됩니다 허나 그것을 제가 들리는소리로 들을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에 언급한것은 없고 하니까 이것은 좀 더 신중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려드느것이 옳시다.

그다음에 그 수도요금 문제에있어서 과거에 정부시장때에 말씀하신것과 현부시장이 취임이래에 이중삼중의 부당성의 요금을 받어서 대단히 막대한 요금이 부정이 수입되었다는것을 아까 김재순의원에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의도니까 더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문제에 있어서 이거 제가 소위 시장이 되어가지고 책임적인 관찰에서 보아서 그런지는 몰라그러되 아닌게 아니라 이전에 무심코 땡기던 거리의 보는바와 된후에 보는바를 보아보니 확실히 그더럽고 또 진개가 많고 더러운 편이 많이있습니다. 실지좀돌려보았습니다.

공동변소에 漲溢을해서 그놈이 밖어나와서 얼어붙은바람에

사람들이 나가서 자빠져서 똥트베기를하고 그거뒵 변소라고 중세는 몰라 그러되 사람은 들어갈수가 없는데 그래 우리 남자들은 중도에서 이렇게 거시기 할수있지만 부인네들은 불가사의라 그래서 내가사전에 사회국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부임초에 실정도 모르면서 뒷한소리같지만 내가좀 반증을 얻을려고 확실히 못하고 나가야할 물건자체가못해지니 이거 도대체 어떤이유냐 그 원인을 따졌더니 요 얼마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책임자들이 교체가 되었답니다.

교체가 됐는데 예컨데 한 구역에 가령말하면 자동차가 7·8대 혹은 5·6대 규모 여하에따라서 있는데 그렇지않기를 바라겠으나 異面의소리는 교체가됨에 따라서 나뭇먹는밥에 제침뻬듯이 그 자동차 부속품에 수리를 하고 그냥 쓰다가서 쓸만한 부속품은 못쓰는데 이래서 8대필요한 구역에 두어서너대씩이 지금 기능을 발휘못하고 그냥 서있습니다.

해서 그런원인으로 아니게아니라 이제 쓰레기 처가는것이 자연이 됬에 따라서 이렇다는 이야기를하기에 7·8대가 있는데 2·3대나 1·2대가 고장이 났다고 하드래도 그건 내부적문제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책임은 책임이니 단행해야한다 그래서 책임제로 강요를 하다싶이 했습니다 하고서 심지어는 그 담당소제부까지 그대가 변변치 못할망정 이것으로서 연명을 해나갈것을 각오를하면 이런것 없도록해야지 이상 간다고 그대로 이상더 할수가없을것을 선언한다고 가혹한말을 했습니다.

하고 심지어는 구공탄 재같은것도 추력에 실어가야할텐데 적당한 위치에 갖다모아놔야 할것이 사실이로되 이거 가만히 보니 이전보다도 더 산만히 여기저기 맘대로 내버리다시피한것같다 말씀에요 그래서 내가 위생과장 보고도요 같은 구

루마로 실어다버리느니 조금만 주의하고 책임지고 노력하면 적은면적에 쌓아놔서 보기싫은것은 가릴수도 있고 다음 제2차작업에 편리하고 시간절약도 될수 있는데 그저 무책임하게 여기 저기 갖다버리니 이럴수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금후에 주의를 주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까닭에 오늘까지는 그전보다 더 나빠졌음이 사실인데 어제 그제부터 독려를 해 온까닭에 며칠 지나는 동안에 이전보다 나아지는것까지 몰라 그러되 요전과같은 원상복구가 되지않을까 하는까닭에 나자신이 이제 순행을 해보겠어요 해서 실제로 실정을 봐가지고 해당 책임자는 물론이고 해당 구청장이라던지에 독려를 해서 이것을 민속히 어떤무엇 하도록.....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고 저중공군이 도라 가는것은 객관적정세가 다맞아야 할노릇이지 이러한것은 열과 성의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면 할수가있는 이분들한테는 무책임한것의 하나인 까닭에 열과 성으로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며 특히 지금 편하고 있는 사람은 몰라 그러되 빈궁한 사람일수록 그교통이 불편하고 고원지대에 사는데 그런데 분노가 넘는다든지 하면안될테니까 책임지고서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수거해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볼까 하는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손구루마가 노고하고 징계생산량에 비해서 청소부가 적답니다.

좀 늘여야겠는데 이러한 사실도 있거니와 그들이 100퍼센트 효율을 내는데 그런지 그렇지않고 흥탕해서 그런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문제에 있어서 동감에요.

지금 외국의 원조까지 들이고 시민의 고혈을 짜낸세금까지 해서 소위 후생주택이라는것 흔히100평 15평내지 20평된 문

화적인 주택은 200만원 300만원 권리금화해서 팔려가니 그 건 어떠한 특수화했고 지금 문학우의원이나 내가 말씀하는 지극한 경제적 빈궁한 움집토막민 들에게는 하등의혜택이 없습니다.

그거 우리 잘알고 있습니다.

허기 때문에 이제로부터 시의 시책이라던지 혹은 발표된것을 여러분이 잘보셔서 아시거니와 정부의시책 가운데도 그러한 방향을 주택을 과거는 수평으로 지었는데 이제는 立本的으로 이렇게 2층 3층 해서 아파트를 해서 부엌 하나에 방하나 둘셋 해서 이제하는데 그 지금 주변의 바락크라는것은 경우에 따라서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드는이도 있으니 이왕 지어논것은 제생각에는 방금 도로즉선에 있거나 남의 개인재산에 즉 말하면 토지에 지었거나 하는것은 부득한 일이로되 미관 위생 교통등 무엇한것은 그냥 둘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실정이 그래가지고 그러한것이 다시 못나오도록 하는 방비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맞다나 얼마간 자기실력대로 낼수가 있는 그돈을 시가받고 또 못내는것은시예산..... 정부예산에 서라도 더 타다가 그것으로서..... 지금 저 자유당 시절에 임흥순 거시니한걸 내가 봤됐습니다.

왕십리 저편 시장위에 흑벽 돌 박어가지고 군대풀어서 지었는데 그거 이미 2·3만원도 안들텐데 가격이 12·3만원씩 받았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있어서의 오늘의 중앙산업이나 실질자비로 해서 세맨벽돌을 박아서 그런 간단한 입체적으로 2층 3층 한 다 할것같으면.....

나도 건축에 다소 경험이 있는까답에 말씀이거니와 7·8만

환…….

그내부에 그저 빈궁한 집이니까 할건 없고 보통 하자면 7·8만환 8·9만환이면 짓게 될것입니다.

이러한것을 지금 보통 14·5만환 5·6만환 들여가지고 하는 까닭에 하등에빈민에 혜택을 못주는 까닭에 이렇게 해서 지어서 이미 돈낸이는 이월금에서 까주고 못낸이는 그월가계산을 해서 15년이고 20년이고 해서 한달에 몇천환씩 몰도록 해서 자기의 소유욕과 의욕을 주도록 해서 한 2·3년내에 다시 새로 지려고 하는 그들을 거기에 입주케해서 안짓도록 하고 제2차적인 3년이 지난후에는 다시 그런거로해서 지금 보기싫게 여기 뒷쪽 저기뒷쪽한 저들을 이런대와서 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허쇼」 「만일에 안할때는 강권을 발동해서 할수밖에 없소」 이런방향으로 가는것이 이 실제 타당치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않어 있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한 그가운데에 뭐 몇백만환짜리 상당한 문화주택으로 지어서 그기지를 몇백평 몇천평씩 점령을하고 이권화하는거 절대 동감입니다.

이거 실제문제로 봐서 용허할수없는문제인데 이거금후에 심심숙고하고 재고를해서 이거 처단하는방향으로 가야하리라고 생각이 가는것이 올시다.

그거 뭐할수없어서 단간 부역을짓고 움집을짓는 이러한 사람을 동정의 여지가 있거니와 이태를 놓칠소냐 하고 4·19이후에 문란하고 혼동 기를 이용해서 돈량이나 있고 그런사람일수록 전문대학 나온 이런 사람들이 그런짓을 했다면 지금히 알맙고 그 4·19를 모독하고 그거 죄인이란 말씀예요 하니 까 그개인에게 이해관계로는 대단히 안된소리로되 이거 당연히 의법처단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이 올시다.

그리고 시 공유지 개방이랄까 이렇게 팔아서 거시기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것은 아마 그런의도에서 지금 어느정도 시가 단행해 왔다고 보거니와 동감입니다.

그거 괜히 쥐고있어봤자 저먹긴 싫고 개주긴 아깝더라고 일이 안되…….

그저 다닥다닥 갖다부치니 꼬락서니만 사납고 있어봤자 소용없고 재정없는데 그런것은 적당히 팔아서 써요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거니와 시에서도 가령 만평있다 그러면 5천평팔고 5천평내에 그5천평판돈으로 입체적으로 아파트 같은것 지어서 없는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보고저 이거 아까도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처음갔던지가 41년되는데 41년전에 가보니 여러분도 다 아시려니와 명치신궁 근처요.

「아오야마」요 이런데 가보면 그때에 벌써 몇십년전에 벌써 지었는지 3·4층의 아파트가 다 낡아빠질 경우에있다 그말씀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직도 이꼴인것을 생각할때 지극히 후진성을 통감치않을 도리가 없는데 이제나마 도리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의미로 여러분과 의논해서 사유재산 괜히 빈나가지고 잔뜩 쥐고있는것 보다는 간단히 처분해서 그판가격으로 이렇게해서 지극히 경제적으로 문제시가 못될 그 빈국민들에게 거주의 혜택을주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없지않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중삼사창굴문제…….

우리서울의 주문인데 제가 40여년전 일본에있을때 사회사업 그런교화방면에 제가 흥미있고 전문하고 그래 좀 시찰나갔습니다.

그때 그 일본사람들은 공창을 인정할때도요 「넛보리」 「후까가와」 이런대로 전부 한테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여기는 목정동 이저 「흔마찌」  
저편에…….

그런것이 있어서 그때는 무슨 이러한 사창문제가 아니라  
공창이라도 폐지해야겠다는 그런 의분밑에서 남의것이라도  
시찰하기위해서 赤面들고 대낮에는 갈수가 없어서 밤에 허튼  
놈 비슷이 이렇게 외트를입고 캄을 비스듬히 쓰고서 그런데  
놀러다니고 건달꾼 비슷이 하고서 몇이 갔더니 그건 참말 볼  
수가없어요 볼수가 없는데 그저 참말 놀러온 사람인줄알고서  
모자를 훗따 벗겨가지고 올라가더니 올라오래는거예요 인질  
할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다못해 어쩔수가없어서 놀것같이  
올라가서 색시가 모자쥐인손을 갖다가 어깨를 덤석가서 쥐니  
까 아야아야하더니 놓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신발신지못하고 돌아나온일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에 소위 제도상으로는 공창폐지가된 이때에 인류  
는 동지요 동포애요 마침 그런판인데 그가업슨 여성들이 그  
어린애들이 그런 밑매음에 그것도 자기의것이아니라 노예가  
되가지고 이중 삼중의 포주에게 착취물로 지낸다는것은 인도  
상 동포애…….

우리의 내딸 내누이동생을 존중히 여긴다고하면 그거 도무  
지 형언할수가 없습니다.

허니까…….

이것은 있는데 우리의 오늘의 실정인 까닭에 도리가 없어  
서 목인 목살 할수가 있는데 이거 좋은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경찰에 절대한 협조를 청해서 한계를 엄밀히해야  
할…….

거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특수지대를 만듭시다.

만들어 가지고 건물도 어느정도 시비를해서 다른것보다

도…….

해서 지어놓고 이런때는 독재써야되요. 사실이 확실한 증명만 있다면 강제로 갖다 수용하고해서 당장 생계를 유지하자니까 그영업 행치 않을수 없겠저 하는반면에 인간으로 정당히 벌어먹을 직업보도를해서 근본행로를 켜주는것이 당연타고 봅니다.

하니까 그만큼 동감인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있어서 소위 우남회관 문제올시다.

과거에 김부시장의 말을들으면 한은에 약2억환의 예제가 있어서 전번에 얼마만을 해주면 다시 안하고 이것으로 충당하겠읍니다 했는데 왜 2억환이 또 나왔느냐…….

솔직한 심정은 이거 있고없고간에 그놈의 우남회관다 헐어버리고 2억환은 고사하고 이리 이모라도 다시 운운하고싶지 않습니다마는 세월은 달려졌고 그것이 우남회관이 변해서 시민회관…….

일부학자님들은 세종회관으로까지에 이것을 개칭해볼라고 하는판인데 까닭에 어느의미에서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보는 점으로봐서 이제 저부시장한테 말씀들으니까요 그 1억환내지 2억환이 한국은행에 있었다는것은 오보랍니다.

그걸 전번에 쓴까닭에 지금 그거 사실은 없습니다.

하니까 없어서 이거 부득불 내친걸음이라 도리가없은 즉 이것을 완수하자면 그저 쓰리지만…….

한은에 1억3천4백6십4만6백3십7환이 있었던것입니다.

기부받고 이렇게해서 이것까지 쓸라고 했더랬는데 기부를 못받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장치니 무어니해서 이걸 다 찾아 썼답니다.

그런까닭에 은행에있던것은 이에 쓴까닭에 이걸 완수하자

면 새로이 쓰라지만 2억환을 해야 한답니다.

그돈 있는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개 변변히 되진 못했읍니다마는 세분께서 말씀하신의도에 있어서 제가 그저 初人生이라 지극히 평범한상식에 불과한 범위에서 성의껏 말씀했으니 나중에 미비한점이 있다면 부시장이하 각 책임전문가들에게 물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의장 한상기; 시간이 마침 한시에 4·5분 전입니다.

(「정회합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오후2시에 속개하기로하고 정회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한상기; 좌석정돈해 주십시오. 재석 31인으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김진창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창 의원; 지금 우리가 정책에대한 질의를하는 중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질의는 비단 시장의 얼굴을 보지않아도 충분히 할수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나오셨드라도 정책질의는 이대로 진행되어가지고서 답변만은 시장이 하시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속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한상기; 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참작하셔서 하실분은 하십시오.

시장이 출석 안했을지라도 시장이 출석활동안에 질의를 하시겠단 순서로 바꾸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시는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김진창의원 나오세요.

○김진창 의원; 저는 보사위원회에 소속이되고 과거 의학교를 나온 한사람인 까닭에 보건정책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있는 문제입니다만이 무면허의사와 무면허약사에 대한 집행당국의 그의도를 좀 알려고해서 이자리에 나오게 된것이 옳시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신다고 할것같으면 면허가없는 의사들이나 면허가없는 약사가 있음으로해서 상당한 귀중한 인명이 희생된다고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것입니다.

첫째 병원이라고 하게되면 면허가있는 의사가 아니고서는 개업이 안될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국이라해서 약사가 아니고서는 약국을 개업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병원이고 약국이고 돈만있으면 면허가 없더라도 돈으로서 개업을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병원을 본다고할것같으면 과거 오랫동안 병원에 근무했다고 하는 그경험을 가지고서 이 의사면허를 한달에 2만원이나 3만원으로 세를주어 가지고 그세를 받아가지고서 영업을 개업하는 이러한 실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정가격으로 세칭 도라가는 얘기가 의사면허 한달 사용료도 2만원식이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반들이 면허가없이 영업을 개업할라고하면 주사를 잘못놓는다든지 혹은 진찰을 오찰을 한다든지 또

는 수술을 잘못해가지고서 귀중한 생명을 뺏는수가 많은것이  
올시다.

그래서 이러한 무면허의사 소위 허가없는 병원에 대한 조  
치를 당국으로서 어떻게할것이나 하는것을 ane고져해서 말씀  
드리는것이고 또 하나는 약국도 면허없는 사람들이 약국을  
개업하다보니까 의사의 처방없이 자기 마음대로 투약을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명의 피해를 준다든지 또한 주사까지 겸해  
서 약국에서 놓다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많은것이 올시다.

이러한 실례로봐서 우리 소위 문화도시의 수도라는 서울에  
서 무면허의사나 무면허약국이 있어가지고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뺏는다는 사실은 소위 의학에 상식이있는 사람이라고  
할때에 지극히 불안한 사회라고 단언을 안내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면허의사나 무면허 약국에대한 단속을하는 중  
양기관인 보건사회부에서는 이단속을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  
으며 우리서울시에서도 단속반이라 해가지고서 7·8명인가 감  
시원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마는 이 감시원도 과거 오랫  
동안 사바사바라고하는 부재한 공기속에서 지내온 사람들이  
기 때문에 역시 이사람들도 그환경에 젖다보니까 다소 그것  
이 법적으로 위반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직에 移諫을하지  
않고 직결재판을하는 이러한 실례가많이 있는것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탈로가 되어가지고서 공무원으로서 형을  
받는다든지 또 검찰에 기소된다든지 이러한예가 과거에있는  
것을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이 무면허의사 무면허 약사의 단속  
을 철저히 하기위해서 과거의 감시제도가 7명 내지 9명으로  
된 이사람들을 개편해가지고서 좀더 강화해서 시민보건행정  
에 안도감을 줄수있는 제도를 집행당국으로서는 생각한바가

있는 하는것을 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립병원이 대소 7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문학우의원계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시립병원이 유료도있고 무료가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환자라고 할때에 전적으로 시립병원에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이고 어느병원이고 가볼것같으면 진찰은 무료로 되고있읍니다마는 시립병원은 약은없으니 환자 자신이 사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약만은 시립병원에서 주지않는 또 마침 진찰만 무료로해주고 약만은 본인 당사자가 사오는 것으로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 병원같은데는 2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갔으리라고 생각이되는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거더가지고서 그세금이 영세시민을 위해서 그분네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라고해서 나간돈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도대체 주지않는다고하는사실은 그영달이된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것을 집행당국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전에도 용산에 어떤 환자가있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한번 병원에 가본일이있습니다.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는데도 1,500환 2,000환 내라고하고 또 약도없으니 그것도 사가지고오시오 또 입원을 한다고 해도 음식도없으니 자작해 잡수셔야지 별도리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각적으로 생각이될때 아직 보건행정에 대해서 제가 잘알지못합니다마는 시립병원이라고 하게되면 급한 환

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편리를 주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어서 이문제는 시당국자에게 논의해보자고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왔던 것입니다.

마침 이러한 보건정책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있어서 오늘 이말씀을 올리게되는 것이올시다.

이제까지 대충 제가 말씀한것은 아까 무면허의사 무면허약사에대한 단속의방법 또 앞으로 집행당국으로서의 의도가 식사라든지 기타 환자로하여금 필요한물건을 제공못하게 되었는지 하는것을 두가지를 묻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묻는것이 우리가 대국적인면에서 공산당에게 먹이지않고 승리하는길은 서울시 220만시민의 사회문제가 서울의 발전을 가져올뿐아니라 사회복지행정이 잘 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면허 의사가 난발이되고 그들로인해서 귀중한 생명이 뺏긴다고 생각할때 지극히 이사회가 불안한 사회라고 생각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시당국으로서의 태도를 취해주십사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대원 의원;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시정감사를 해가지고 시정의 전반에 걸친 부분에대해서 예비지식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해야 올바른 정책질의가 되리라고 믿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정감사를 못하고 곧 정책질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질의가 혹 감사나 또는 분과질의로 발언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을보면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도시계획문

제에 언급되어가지고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감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특히 이공원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도시계획 그내막을보면 서울시내 각처에 소공원 설치를 한다는 명목하에 지정된 장소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사유지뿐만아니라 기존건물이 가지고 개인의 소유재산을…….

부분이 많이있는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있어서 서울시내에 과거부터있던 공원들을 도리켜보면 그전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있는것 같으드니 남산 호창 할것없이 어떠한 이익 어떠한 결함으로해서 공원이 다른 위치로 바뀌져가고있고 하나 있다고하는것은 삼청공원 하나밖에 지금 천연성을 그대로 보유한것은 삼청공원 하나뿐인데 이 공원마저 서울 김시장은 새로히 시장이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 관한것을 모르시고 계실른지 모르되 그이외의분들은 능히 알고도 남음이있을만큼 공원이 부족화되어가지고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서울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수도라 그말이에요.

이 수도 서울의 면목을 가출려고하면 우선 참다운 공원하나 있어야 될법한 일이라 그말이에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연성을 보유하고있는 이 삼청공원마저 어느 정책밑에 어떤 방임상태에 있는지는 모르되 하나 하나 무허가건물이 세워져가면서 이천연성을 마비시키고 또한 주택화 地化해 가고있다 그말예요.

이런것을 도리켜서 생각해볼때에는 특히 이 삼청공원으로 말하면 본인이 종로구의 출신이기때문에 이 종로구출신으로서 여기에대한 말을하는걸로 생각하지 말으시고 우리서울시의 면목을 갖추기위한 천연성인 이삼청공원 하나 만이라도

시로서의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것이며 또한 외국인들이 온다거나 또한 서울시민으로서 유일한 휴양소로 알고 한여름이나 겨울에도 수십만명이 사용하고있는 이 공원을 그렇게 사용하고있는 이 공원을 그렇게 사용할수없도록 차츰차츰 되어간다고하면 이것은 우리시민으로서도 불행한일이요. 또 실무자측에서도 불행한일이라아니할수 없습니다.

여기에대해서 도시계획에 작성해놓은 새공원을 보호하는데 더 힘을 기울여서 그것을 이용하도록하고 백만인구에 해당되는 서울시의 작성해놓은 이새공원문제를 좀더 조속히 재검토해가지고 필요성없는 새공원은 하루속히 철폐하고 정말로 새공원을 설치해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설치해서 새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시유지라고 해서 새공원을 만들겠다고 작성해놓은 그부분에 새공원을만들지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까닭에 한채두채세워 가지고 무질서하게 미관상 좋지못한 건물이 서가지고 커다란 새공원도 되기전에 이미 「하꼬방」 촌이 되고만다.

그말이에요.

이러한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해둘것이나 그렇지않으면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기왕에 새공원지대로 작정을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새공원을 만들것이나 그렇지않으면그것을 시민에게다가 어떠한좋은 방법으로서라도 양도해가지고 주택지로 화해서 시민이 잘살수있는 서울시를 만들것이나하는 점을잘밝혀주시고 그다음으로서 94년도 시정연설가운데에 여러가지 중요한 시설문제가 나와있는데 개중에는 특히 더중요하다고 해서 원효로4가에 원효로교를 가설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있는데 그보담도 한걸음 더나가서 중학교 암

거공사가 완성을계획하여 도시위생은 물론 교통난에도 일조가 되고저합니다다하는 말씀이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중학교 하천은 거기에서부터 연달어가지고 삼청동공원까지 빠치고 있습니다.

이공원을 좀더 미려한 공원으로 만들려고하면 그하천을 더연장을해서 공원을 연결을했는데 만일 금년도 예산에 이중학교 암거공사로 해가지고 180미터를 더했는데 이것도 180미터로 꼬질것이나 그렇지않으면 년차적인 계속을해가지고 공원밑에까지 이것을 연장해가지고 완전한 하천암거공사를 해주실것인가 그것을말해주시고 특히 본인의 구역이라고해서 말씀드리는것을 죄송히 생각하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저하는것은 「태화동」 구역내에 「팔판동」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청와대 부근에 속해가지고있는가답에 소공원지로 작정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대에는 왜정때부터 기존건물이 세워져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속재산이라든가 또한 사유재산은 조금치도없고 모두가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삼청공원근처에 바로 가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소공원이라는 설치를 하겠다고해서 계획을 해놓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 이 소공원설치문제로 말미아마 막대한 피해를 지금음으로 양으로 입고있는 사실을 말씀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서 하루속히 제거하거나 그렇지않으면 부득이 실시를 한다고하면 조속히 실시를 하거나 양단간에해가지고 그주민의 불안을 제거해주어야만 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이문제를 가지고 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이것으로써 그치려고 합니다.

○의장 한상기; 다음은 노명수의원 질의해주세요.

○노명수 의원; 세월이 흐름에따라 발전이 있것만 과거 독재를 물리친 오늘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한 뚜렷한……. 우리의 포부를 나타낸지…….

좋은 의사를 반영시키지 못한데 있어서 가장 원한이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특히 김시장께서 좋은 의사를 표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좋은 의견을 또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 할것같으면 과거의 의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하나의 업적을 남겨놓는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앞날을 빛나게 시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사회를 빛나게 시킬라면 순서있는 하나의 계획있는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될텐데 특히 영세민을 위주로 하고 또한 일반적을 위주로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것같으면 금반 중구청을 다시 신축한다는 그러한 명목에있어서는 우리가 또한번 생각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동을 통합한다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있지만 저히 의견으로서는 구를좀 주려가지고 동을 좀 늘여가 면서라도……. 또는 늘구지 못한다고 할것같으면 현재의 동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힘을 써주는 방향으로…….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 중구청이 오늘날에와서 꼭이나 신축에…….

신축할수있는 명목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럼으로 신축에 대한것을 좀 의미진지하고 또한 진지하게 하지않을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것을 묻겠습니다.

또하나 과거를 통해서나 오늘에 있어서나 또한 우리가 항

시 원하는것은 구민을 잘살게 시킨다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민에게 해를 끼치지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있어서 가장 힘을쓰는 방향으로 나가지않으면 안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권자들의…….

참 그지방의 여론을 잘 살펴가지고 그 여론에 입각해서 하나의 일이라도 좀 더 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은 과거 하나의 처결문제에 있어서 단기4293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이러한 하나의 결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낭독해드리고 거기에 묻겠습니다.

서시의의제20호

단기4293년 8월12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성북구장위동69번지 귀하

김학수

도로폭확장 (장위동 상과대학) 및 교량가설에관한청원의견  
지난 4월1일자 제출한 청원을 8월10일 개의한 제37회 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기 이에 통지하오니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처결을 일일이 모르나마 중 심지를 위주로하는 이러한 취지밑에서 아마 일을 해볼까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으시다고 할것같으면 좀 서울 전반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일으키지않고 세국민을 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통난에 허더기는 시외 6부선을 위주로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지금 장위동 일대에서는 1천5백세대를 가지고있

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난에 허더기고 심지어 별세계의 대우를 받고있는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구청 신축문제라든가 기타 교통시설문제에 있어서 가장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특히 저히 마음과 신념이 어느정도 통할수있는 시장께서는 좀 더 외곽선에대한문제를 연구해주시고 또한 중구청신축문제를 가부또한 어떠한 방향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상기; 세분이 다했습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상기; 삼문이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상돈; 먼저 김진창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첫째 무면허의사 혹은 약사 여기에대해서 법적으로 보거나 주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의사사업에 있어서 이런 무면허의사나 약사가 행해서 쓰겠느냐 이말씀 대단히 의의깊은 소중한말씀을 하셨다고 보는것입니다.

그간에 사실 3·15 부정선거를 한 계기로해서 이것이 굉장히 부풀려 올라왔고 그럼에 반비례해서 시당국은 거이 방임상태에 있다싶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시민의 이마살을 지푸리는 도수가 날로 늘어갔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러한데에 심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까닭에 간신히 어느정도 이제 수습이랄까 단속이 되어서 이런것을 조사한 통계표가 장차 여러분의 손에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의료업자 적발현황과 거기에대한 처치를 조사 통계표 올립니다.

또 여기에는 부정약품 단속상황에 대해서 의약품 방역약품 화장품 의료용품등에 대해서 단속적발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처리한 내용이 여기에 사여있고요 그다음에 부정약업자 단속 상황이 여기에 있는데 무등록 약업자가 193건 부정약업자가 87건 부정의약품 생산업자가 5건 의료용구 생산업자가 2건 합이 287건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고발 허가취소 업무폐지 폐쇄 기타등으로 해서 전기 287건이 여기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약품 단속상황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네곳이요 방역약품이 설흔일곱곳이고 화장품 관계가 여덟곳이요 의료용구가한곳 합계 50곳인데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해서 적발되고 고발이되어서 한곳에 있어서 50건이 그대로 여기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대한 처음에 드렸던 의료업자 적발 현황이 여기에 통계해 놓았는데 의원이 18건이요.

대진 행위자가 14건이고 무속출자가 7건이요 표방 위반자가 41건이요 그래서 합계가 80건이요. 限地의원이 두건이요. 치과의원이 무면허 행위자가 셋 대진행위자가 열다섯 無屬出者가 마흔아홉 계 67건 한의원이 넷 무면허 올시다.

대진행위자가 둘 무속출자가 셋 표방 위반자가 설흔 다섯 합계 마흔넷 그다음에 침술원이 침놓는것이요.

침놓는것 그것이 무면허행위자가 셋 표방행위자가 하나 합계넷 기타 셋해서 합계가 200건이 적발되었는데 전기와같은 고발 폐쇄 停業처분을 正通造 훈계처분등으로해서에 200건을 다적당히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고로해서 김진창의원이 처음 말씀하셨던것은 그간에 시국관계로서 많이 이런것이 남발이 되었고 또 시당국은 단속을 못했던 것으로 이와같이 해가지고 응분의 처치를 했을 뿐더러 장차는 별지사항으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건

부 시보건 경찰 검찰 혹은 동업조합의 여러분들과 합석을해서 이방면에 적극적인 이러한 불법 불의의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을 엄숙히 시에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시약이 불충분했고 급식이 불충분한 것도 필개가 아니라 3·15 부정선거를 전후로해서 그런것이 사실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인심이 그렇게 실제 무계획하니 환자가 몰리고 한까닭에 예산부족과 그 무모한 획책 밑에서 한 까닭에 그러한면이 많이 있겠거니와 금후로 있어서는 무료환자에게 감당할수 있는 어떤 제한수를 정하고 또 무료 내지 무능한경우는 실비라도 받어서 어떻게 이렇게 해나가는 이두가지 방향으로 하므로 있어서 지금까지의 거이 무모한 무계획할 상태에 있어서 다소라도 나아지리라고 생각이되었기때문에 이시립 병원 운영내용에 있어서는 그같이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지대원의원이 말씀하신 공원문제에 있어서 현재 기설된 대공원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면목이 그럴듯 했드래는데 세월이 갈수록 나아지지 못하고 점점 퇴폐해서 신성하고 깨끗해야할 공원이 지극히 더러울뿐더러 남보기에 부끄러울 상태에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것이나 동감이 올시다.

고로 이런것도 점진 계획을 세워서 과거에 원상복구 내지 일신하는 방향으로 있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그 공원내에 있어서 변소에 나가보면 보통지대와도 달라 가장 깨끗해야 될 공원지대에있는 변소가 말할수없는데 가일층 주의를 시켜서 그런것을 깨끗이 시키겠고 또 놀러운 시민의 부주의로서 모든것을 더럽히고한것도 거기에 해당직원에게 주의를 촉진해서 곧 그런것을 깨끗이 되는 방향으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거 그렇게도 해야 하려니와 우리 시민의 공중위생 관념 그런데에 좀 관념이 높아지고해서 자체의 변소사용이라든가 와서 놓고서 버리고 가는것등 이것이 좀 주의해주는 편으로서 시민계몽들도 참 시민을 대표하신 여러분들이 좀 직접 간접으로서 좀 계몽을 시켜서 서로 자치적 의도에서 확보해나가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 예정지대가 상당히 처처에 많고 이것은 하지도않고 그대로두고 이래서 도무지 시민의 직접 간접에 많은 막대한 손실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듣건대는 20개소가 예정지로 있으며 한곳도 충분히 실시가 못되어서 이제 그런말씀을 듣게된걸로 아는것입니다.

이런고로 그간에는 문란한 시국적 관계도 있었겠고 예산관계도 있어서 만족한 여기에 가부의 시책을 못했거니와 금년부터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차라리 못할것은 못하고 단행할것은 단행하고 좀 보류할것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어떤 안을 내리고저 하니 그렇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청옆 암거에 있어서 거이 되었는데 저도 보기에 아직 미완성된것을 보면은 유감입니다.

그거 가능한데 어찌 미완성을해서 완전히 편이를 못보고하는것 해당국에 저도 문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촉진시키겠고 또 이제 말씀하신 거기에서 일보를 더 나아가서 삼청공원까지 뻗친 연장을 했으면 공원지대도있고 교통과 도로에 모든 편이가 되지않겠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삼청공원 올라가는 거기에 계천폭이 있는까닭에 그것을 암

거팔가를 한다고하면은 그런 궁벽한 곳에 전부도로 쓰는데 부담도 어느 일면은 주택지팔가 점포를 이용하더라도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해서 기구가 부족예산에부족한 우리시비 자체로만 이것은 연구해볼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이거 일종의 사업성이랄까요 혹은 이권관계가 있다고 할까요. 이런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일반시민에게 공개해서 전문적으로 폭이라든가 재가지고서 충분히 도로교통에 지장이없는한은 이것을 어떤 출자자로 하여금 암거래도 해가지고 그 여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무엇이 있지않을까 해서 연구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가는것이올시다.

하는 까닭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거니와 그지역에 사시는분 누구보다 더 잘아실터이니까 연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팔판동 태화동 근처의 소공원 문제는 그대로이니까 거기에 별 답변을 다시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상 소공원에 대한 문제는 시자체의 그간에 무력과 여러가지 사정이있어서 원만히 못한것도 사실이거니와 이것을폐합 혹은 시설하는것은 시자체만 하는것이 아니라 시행정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내무부 내무부도시계획위원회 다시 말하면 기관이 넷이 통해가지고서 어던 가부의 합의성을 보기전에는 실천 혹은 폐쇄등등이 간단치않은 까닭에 금후에도 약간 형식론에 의지해서 좀 천연이될 염려도 없지않어 있는까닭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노명수의원의 말씀은 청사신축하기보다는 좀 내핍적인 의도에있어서 시민의 출혈적인 부담을 시켜서 호화찬란한 청사를 짓고 그 공무원들의 편이성만을 볼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그대로 지날수없느냐.

아까도 내가 사전에 말씀한바와같이 절대한 동감인데 그것은 그것과는 좀 성질이 달습니다.

이제 잠깐 들으며 제가 잘 알지못해 그러되 현재에 있는 청사를 팔아서 다시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 깨끗하고 보담 더 난 규모에 되는것이 이열 치열로서 되는 가답에 시민에게 출혈적인 신영선비는 아니고 그것으로 있어서에 대치함에 따라서 좀 나아지리라고 하는 까답에 이점에 있어서는 염려말어주시기를 바라며 그 원칙론에 있어서는 저도 절대 찬성이며 바라건데는 약간의 예산 드리다졌다고 가정하드라도 원만큼 견딜것은 예산에 만들든지 다른 뜻보담도 너 적극적 좋은 사업에 쓸지언정 이런면은 십분 주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대로 이용해가면서 시민에게 부담을 적게 시키며 이용하는방향으로할것을 그점을 주의하겠습니다.

93년8월11일 결의에 의한 도로 확충문제등도 말씀하실듯해 그러되 사실에 있어서의 천연이된 모체이나 금후에 이런것을 조사해서 신속히 실현방향으로 할것이 올시다.

그러시고 이행정을 잘하자고 하면은 더구나 4·19혁명이후에 독재시대와 달러서 여론행정 여론정치 여론사무를 보아야 할텐데 어떻게 할것이나 하셨는데 이런정도의 말씀인듯한테 불문가지로서의 여론을 미처 못들었을때에는 묻기라도 하겠고 사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면 감수해서 여기에 경중을 가려가지고 지성것 할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성북구주변에 교통난에있어서 무한이 고충을 보시느니것 같은데 과부설음은 과부가안다고 더 말씀안하겠습니다마는 절실히 동감으로 느낍니다.

왜 저는 31년전 부터 마포구 주변 지금은 서울시 마포구 주변이로되 옛날에는 고양군 연희면 장다리에 사는 까답에

온 동리에 소금장사밖에 없고 도깨비밖에 살수 없었던 관계로서 교통 교육 의료 생산 기타 문제가 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구태의연한데 자연 추세로서 한 3할이나 어느정도 개선이되고 여전히 70%는 구태의연한 상태에 있어서 오히려 시외발전을 시키고 초개해야 한다고하는 정부와 시의 방침이로되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리라고 나같은 사람들도 교육의 불편 기타의 불편으로서 살수없다고 집팔고서 지금 들어오는 판이예요.

하는 까닭에 성북구에 계신분만의 느낌이 아니라 저도 31년전부터 오늘날까지 느껴오든 까닭에 무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 주변에 있는 특히 종로중구에 출신의원들은 좀볼만이 되실지 몰라 그러되 이런데는달걀노른자위 같이 이것을 참아 주시고서 할수있으면 주변 이 방면에 치중을해서 개선에 개선을 해 볼려고 하니까 저의생각이나 계획이 모자라든것은 수시 늘 말씀해주셔서 어느정도의 원활성을 도모하도록 이 지도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세분의 말씀하신데대해서 미비하나마 이상 말씀을 드리고 고만 물러가겠습니다.

○의장 한상기; 안호길의원

○안호길 의원; 이사람은 직업이 의사이기때문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문학우의원 김진창의원이 대략 말씀은 했지만은 나의 묻고싶은말은 묻지않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한번 다시 그 근본적인 중요한 포릿손을 얻기위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제2공화국에 탄생된 이후에 민선시장 대정치가

선배이신 김시장은 시장을 초월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근본문제를 알아가지고 정치를 하셔야지 지역적 문제만 가지고 정치를 해나간다면 이젠 즉 말하자면 의사가 원인을 모르고 열이 났다고 「아스피린」만 주고 체했다고 「소다」만 주면 근본적인 병이 낫지않기때문에 내가 묻겠습니다.

시립병원…….

지금 환자들이 가도 진찰만하고 약을주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면에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일정때 일본놈들은 정치할때 대학병원이나 시립병원을 운영하는데 1년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감사를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가지고 그 수입으로서 병원 경상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생활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돈을 내던 안내던 병원이 잘 근본문제가 운영 잘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시립병원이나 모든 보건소 실태를 본다면 근본문제는 병원에서 수입되는 그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와 모든 운영을 해나가는 제도가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보건정이 차차 후퇴해갑니다.

앞으로 시립병원이나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근본문제를 고려하셔서 의사 약제사 간호원들을 좀더 충분한 예산…….

수자적으로 말씀하지 말라고해서 수자적으로 말씀안하겠지만 그런 대우를 해 가지고는 근본문제가 해결안되고 아무리 김상돈시장이 명령을 백천번 해봤자 그난관은 해결 안되리라고 믿는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정관들은 지방참사의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무슨…….

이사관이니 그렇게 되어있고 기술자로 말씀하면 기사 기사 기정 기감 이러한 정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 근본이 왜 그렇게 일반행정관은 사무관이니 이렇게 되어있느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정의 전문지식을 가졌고 또 그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상하단체에서 0잡수입 있을런지 그런것을 생각 해서 아마 봉급을 조금 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이나 약제사…….

이런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를 기사 기좌 기감 이런것 으로 구분해놓고 대우는 일반공무원과 똑같이해주기 때문에 내자신이 의사인데 한달에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만원 내지 5만원 주어가지고 의사가 능률 발휘못하는거…….

적어도 기술공무원에대한 대우개선을 해주지않으면 의사가 시립병원에 나가서 근본문제를 해결못하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이걸 해결하기위해서는 서울특별시만이라도 조례를 변경 해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여쭙어 보겠습니다.

고 다음에 지금 서울특별시에 직업소개소나 전당포가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나 세공민을 위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자 농민을위해서 무직자 「품팽」 을 위해서 설치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내 세공민 무직자가 얼마만큼 취직을 시켰고 어느정도의 간선능력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전당포 이것이 세공민이 살기가 곤란하다는것을 느껴서 은행에서 대부 못얻고 급하면 양복한벌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돈을 얻어Tm계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생겼을 이 전당포자체가 가령 한 10만원짜리 가져가야 5천환이나 만환미만 이것 가지

고 해나갈 도리가 없고해서 나는 금번 서울시내에 일반세공민을 위해서 서민은행이 생긴다는데 전당포를 시민은행으로서 방침을 변경할 용의는없는가.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마약이라는것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국가민족을 좀먹는 제일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믿기때문에 내가 의사로서 마약에 대해서 말씀안할수 없는데 마약중독자 처치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정도 다른행정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국제마약정신에 입각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말씀올리는 동시에 마약중독자 처리대책을 한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무면허 의사나 무면허 약국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야간개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간개업의 제도라는것이 우리나라 법령에도없는 개업입니다.

그러나 왜 생겼느냐…….

6·25 사변을 기해가지고 1·4후퇴했다가 각의사들이 부산이나 대구 갔다가 수복해서 각 관공청에 들어가니까 관공청에서 3만환 내지 5만환주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생활 대책이 되지않는다고해서 보건부령로서 감시조치로서 야간개업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내용이 되어있느냐 하면 아마 오전중이면 관공청에 군의관 약사관으로 나가서 일을하고 오후 다섯시에 퇴근해서 벌어서 쓴다고하는 의도하에 이 야간병원이 생겼는데 오후 다섯시 이후에만 환자들을 보느냐하면 그

렇지않고 일반환자들이볼때 무슨병원 무슨병원 하면 야간병원인지 일반병원인지를 분석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업이라는것이 있기때문에 오전 밤중 할것없이 대진을 두고 의료행위 하는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중대한 문제이나 우선 서울특별시만이라도 보건장관과 상의해서 서울시내에만 한해서라도 야간개업을 폐지할 도리가 없는가 이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성동구 출신의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광고로부터 동대문까지 복개공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 국가민족을 위하든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과거 자유당 정치하에서 다른것은 죄 나쁘다고 했지만 이것 만은 우리나라 2천만동포가 다잘할것이라고 안 느낄사람이 없다고 보기때문에 천추만년 자손만대에 기념이되고 서울특별시가 그런 좋은 공사를 했듯이 동대문부터 왕십리로 향하는 하천을 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직원들 사고방식에 대해서 하나 여쭙어 보고싶은것은 과거에 자유당정치하에서 관료주의 일정시대 관료주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아직도 시청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내가 느끼기때문에 이 사고방식을 고칠수 없는가 예를들면 내가 이런실례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동구청의 어떤직원이 안호길 시의원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안호길이 신민당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 그만 두어라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가서 예기했더니 선처하겠습니다.

잘 보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깔쭉깔쭉 한다고해서

계장한테 어제 전화를 쓰윽 걸어서 한번 잘 보아주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궁금하니 한번 전화했더니 아니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저도 구청의 일개계장인데 전화로 말하는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때에 아니 계장한테 전화 못하고 누구한테 합니까 아니 시장이면 어땡고 대통령이면 어땡소.

민주주의에서 내가 시의원 아니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직원한테 전화를 했다고해서 그게 감정이나서 이사람을 목을 잘려야 되겠읍니까 했읍니다마는 날더러건방진 태도 갖지말라는얘기가 나와서 전화를 딱 끊고 말었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의장 한상기; 우봉운의원 질의해주세요.

○우봉운 의원; 처음 단상에나와서 발언하는 관계로 해서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제대로 안될것같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고 제 의도가 어디있느냐 하는것을 충분히 이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불충분한 말씀을 하더라도 잘 이해가 가지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4월혁명이후에 제2공화국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초대 시의원으로 당선될적에 모든 부패와 독소를 제거하겠다고 하는것을 우리시의원들은 누구나 공약했다고봅니다.

또 김상돈 시장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야에서 최선봉으로 투쟁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취임시초에 인사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대단히의외의 방향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신문지상에도 대서특필해서 난줄 압니다마는 저는 김시

장이인사행정 조치에 있어서 과감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볼때 대한민국 과거의 썩은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제2공화국수립후에 장정권이 정권을 맡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불만이 모두 인사정책을 제대로 안한 대서 불만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뿐이라도 과감한 인사조치를 제대로 해야만 김시장을 믿게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울시 부흥을 위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집행하는 그자체가 사람이기때문에 과거에 부패정권하에서 아부를 했다면 자기의 무능력한자가 자유당의 권력에 의해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그러한 사람 사람이 아직도 우리시청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부인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그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대해서 의사당에서도 질문이 많았고 사회에서도 말이 많았읍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불적에 서울시청과장급이하에서 대단히 동요를 하고 너할대로 해보라고 뱃장을 내댄다고 하는것불적에 저는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례적으로 사표를 내라는 것이지 어떤 법적근거에서 강요하는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사람들도 4월혁명의 의의를 생각하고 이것을 완수함에 있어서 백년대계의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게된다면 마땅히 사표를내야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솔직한 말씀이지 구청이나 본청을보면 산만한 태도로서 충실한 집무안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어떻게 되겠는지 내일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도 겁내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신상필벌주의를 써서 자기가 오늘까지 일을 충실히 해왔다고 하면 아무리 자유당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말단직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장께서는 그사람의 인격과 그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자리를 올려줄 것이고 독소를 내포했고 과거 자유당 밑에서 없는 사람이 올랐다면 그사람은 의당 사표를 내고 안내고간에 인사조치 해야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동요되고있는 이 사실을 하루빨리 무마함으로서 행정의 본궤도에 오르고 예산이 통과되어도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관계로해서 시장께서 첫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이 물의를 많이 일으켰읍니다마는 저의 시의원으로서도 누구나다 여기에 동감하고 뒷받침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늦으면 그만큼 시행정에 결함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빨리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을 대단히 행정면에 있어서 혼란이 오지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로해서 책임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자기성의껏 답변을 할수있는가.....

자기위치가 어떻게 될까 걱정 되는 의미에서 적당히 우물우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서울시내동수가 251개동인데 여기대한 소요 운영비가 실로 12억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실지면에 예산면에 반영시킨거와 마찬가지로 실질

면에 있어서 동을 폐합하는것이 우리시재정상 막대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동감해 마지않습니다.

그런관계로해서 지금 동내에서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 동이 폐합된다하니까 서로 동장들이 그구역관계로 해서 앞으로 선거관계 구역관계로 해서 동요되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폐합한다고하기전에 구청에서 장악하고있는 행정을 동에다 대폭 이양할것도 생각했든지 더퍼놓고 유지비만 줄이기위해서 폐합하는걸 생각했든지 여기에는 자세히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지금 동장은 임명되어있는 동장입니다마는 그임기가 2년이기때문에 동장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일하는데충실한것보다 자기 선거기반 닦는데 충실하고 있다는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이 동장들은 자기의 선거구를 확보하기위해서 여기에만 급급할뿐만 아니라 이동을 폐합해가지고 동장선거를 실시한다고 할적에 갑동이나 을동 이나 병동 세개를 합한다고 할적에 갑동에도 나오고 을동에서도 나오고 병동에서도 다 나왔읍니다.

또 심지어는 한동에서 둘도 나오게됩니다.

이렇게된다고 하게되면 그 선거를 치른후에 동장출마가 세사람이 나오면 3과가되고 다섯사람이 나오면 5과가되어서 동행정운영을 하는데 큰 결함이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인화조성에 있어서 대단히 해로롭다는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적에 당국자는 여기에 좀 연구해서 지방자치법을 행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임명하는 제도로 나갈수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봉운이가 민주당 출신이기때문

에 이런 말을하는가 생각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냉철히 현실을 무시할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것입니다.

다른 관계를 좀더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이제 고만두라고 통지가 왔읍니다.

초선의원이 아무래도 말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는것보다 이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의장 한상기; 다음은 고흥평의원 말씀하세요.

○고형평 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싶은것은 다름이 아니고 첫째 오늘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둑질을한 근거를 대라고 하는것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때문에 여기에 큰 관심을 아니 가질수가 없어서 몇마디 질의를 하고저 하는바 올시다.

건설공사 예산의 60%라는 그 도둑질할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만일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면 65%라는 이 비율을 예산에서 삭감해도 좋은가.

삭감할때에 책임있는 공사를 착공할수 있는가 이것을 나는 질의하고자 하는것이 올시다.

왜 내가 이말씀을 되푸리하느냐하면 저번 긴급동의안에서 답변할때 민선 김시장은 말씀하시기를 수자를 들면서 얘기할 일이 있다고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바입니다.

수자적으로 기억안납니다마는 일반경쟁입찰에 부한결과 약 60억이라는 금액입니다.

정부 흑자로서 남은돈이 약 25억 수의계약을 한결과 30여 억이라는 이수자에 정부에 「푸라스」 된것은 단 9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것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선 김시장이 건설업계의 내면을 잘 모르고서 하는 말씀인가해서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했읍니다마는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또다시 60여% 라는 금액을 해먹었다는 근거를 제시할때에 참으로 놀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장 주관하에있는 기술자들이 과거 김시장 발언한 그것에대해서 이 건설계의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데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볼때에 건설국장은 무엇을 하고있느냐 말예요.

엄연히 법에 의해가지고 일반경쟁입찰 수의 10명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근거로서 내놓은것이 무엇이나하면 작년 12월20일에 입찰할 제2마장교 가설공사 입찰한 당시에 있어서 낙찰이 4백2십5만환이다. 여기에 정부로서의 흑자 7백15만환을 가져왔다 이%는 63%였다 이것이에요.

일반경쟁입찰에 부한 결과 흑자가 63%를 가졌기때문에 과거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많이 생겼다는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않기때문에 이런말씀이 나오지 않는가 본의원은 보고서 주무국장에게 묻고싶은것은 스스로 국장은 도둑질했다고 하는것을 자인하느냐말야.....

건설업계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본의원은 이 제2마장교가설공사 입찰결과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사조례에 의하면 제2조에 6항에 들어가면 공사동업자의 추가공사를 도급할때에는 수의계약을 할수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1차 2차 아마 계속적으로 나오는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는 여기에 주안 점을 두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제2차공사에는 결손을볼 각오를하고 공사를 따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할수있기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63%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가지고서 낙찰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액면 그대로 63%를 즉 37%나 되는 공사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드려가지고서 설계한것은 도독질 결과가 아닌가 이런말씀을 하실적에 서울시 전체의 건설계에 대해서 희망을 주지않은것으로 주무국장은 그 자리를 과연 남용했는가.

그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사실을 시장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저는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때에 65%를 감해가지고 편성을했든가 만일에 감해가지고 편성하지않았다면 우리의원들이 65%를 감해도 좋은가 감할때에 있어서 그 공사는 충분한 공사가 될수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에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반경쟁입찰을 지명경쟁입찰로 입찰방법을 바꾸는 어떠한 연구를 해본일이 있든가 지금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수라장화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공사 한건에 7·80명 내지 130명이라는 인원이 모여가지고서 130대1 또는 100대1 이라는것으로 공사를 하기때문에 자연히 경쟁을 이루어서 그 공사를 그야말로 63% 아니 정말 70%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순간만은 기분에서 낙찰이 되겠지만

은 일단 낙찰된 다음에 시공할때에는 그사람이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시공이 충분히 되지않으리라고하는 것은 건설국산하 직원이 잘 알고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그야말로 정실적으로 움직이지않는 균등한 정신으로서 지명 경쟁입찰을하게되면 골고루 업자가 할수있지않는가 이런의도하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바이 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타부처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교통부같은데에는 수만환 이상의 액면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로 환원하고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거에는 지명경쟁입찰을 할것이 자유당 정부때에 특권을 부러가지고서 일부 업자에게만 공사를주고 배경이 없는 업자에게는 공사를 주지않는 여기에 업자들이 반발이나서 이것은 못하겠다 하는 결과에 의해서 일반공비 경쟁입찰을 하게된것으로 생각할때에 오늘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마당에 있어서 주무담당자가 공정한 입장으로서는 지명을 하게 된다고 할것같으면 건설업계에 큰발전을 가져오리라 믿고 이런 질의를 하는바이 올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김시장이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하기때문에 부정을 가져왔고 도둑질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엄연히 재정법 57조에 의해가지고 동시행령 102조 103조 서울시 공사도급 제2조 제3조 지명경쟁 입찰이고 수의계약을 할수있다는 조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는가 이 말씀을 제가 묻는것은 건설업계에있는 시민들에

게 큰 참고가 되기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오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만 끄치겠습니다.

○의장 한상기; 집행부 답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부시장 김주홍; 시장님이 발에 신경통이 있어서 어제부터 신음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하게된것을 이해해주시고 또저로서는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사항이 대단히 부진해서 저의 집행당국도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이고 또 시민의 빈축도 사고있는것이 사실이올시다. 거기에 근본대책으로서 안의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역시 의사의 대우 처우문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것과 같이 그 법규관계로해서 공무원의 대우문제가 공무원에 또는 공무원법에 저촉받음으로해서 그 원장님에 대해서 도리없이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등급에의해서 책정을 했고 그다음 의사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초대 시의회가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그 개선하는 방식이 좀 몇몇치 못한것 같아서 이번 정식으로 과장선생에 대해서는 10만원 일반의사에 대해서는 7만원정도로서 처우 개선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견습하는 「인터」에 대해서는 3만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과위원회의 예산심의때에 상세한 설명을 하고 또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받을 기회가 있을까 합시다마는 대체로 우리 서울시가 여러가지로 병원을 경영하고있는데 그 병원에 들어온 수입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는 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무료환자에 대한것을 어느정도 제한하고 실비부담할수있는 시민의 %율을 약간 올렸습니다.

그 결과 병원으로 수입될 세입이 약 1억정도 될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지출할 금액은 무려 4억9천만환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행정에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에 물론 의회에서도 과거부터 꽤 동정적으로 편달하는 의미에서 용인해왔고 또 지금의 새로운 예산으로 이것은 감히 수자 문제가 아니올시다.

1억환에다가 4억9천만환이니까 이것을 내놓은것은 복지행정의 일단이기때문에 내 놓은것이 올시다.

행정으로서 참 그야말로 과격적인 그러한 예산이 아닐수 없을뿐 아니라 각보건소가 각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은 「제로」 올시다.

여기에 위생시험소에서 약간이 경비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수자상으로 나열할수없는 수자올시다.

그런데 보건소와 위생시험소에 중앙에서 나오는 금액이 1억5천여만환이 올시다.

그럼으로 위생시설에 들어오는것이 1억정도인데 중앙에서 나오는 것은 약 1억5천만환정도 올시다.

그점은 우리서울시 재정으로서 꽤 감당하기 어려운정도로 의료시설을 빌려놓고 있는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선시장님을 맞이했고 또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니만치 여기에대한 앞으로의 검토가 더욱 필요할줄 압니다.

미래 이시가 자치단체가 공영기업체로서 또한 공공시설로서 이러한 병원을 갖는다는것은 어느정도까지 법에 의무로 되어있읍니다마는 우리서울시는 국가의 의료시설을 갖고있고 또한 국제적인 원조에 의해서 의료시설을 갖고 있고 또 수많은 사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특별시의 보건시설은 거의 과잉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보건행정의 시설에 비할것 같으면 격이 다른 그런상태에 놓여있는것이 올시다.

여기에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취업소개소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 직업소개소는 특히 사회보장 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 직업소개소의 역할은 대단히 크게 기대되는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기 기능에있어서 활발하지 못한것을 자인하고 또 운영에있어서 이것이 거의 정부의 뜻에 의해서 또 그 예산에 의해서 그 원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이고 시 자체가 여기에대한 활발한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것을 자인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점차로 특히 노동문제라든가 또는 관련되어서 실업자에 대한 구제문제라든가 또는 기 노동자에대한 보험 제도라든가 이와같은것이 국가적으로 크게 기대 안되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여기에 따라서 할수있는한 시가 달리 계획을 하고있읍니다.

이 직업소개소가 극히 미약하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많

은 실업자가 있고 또한 이 기관이 꽤 미약한 기관으로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만해도 대체로 작년도의 그 실황을 볼것같으면 구직을 하는데 직업소개소를 믿어주고 그래도 여기에 직업알선을 해주시요 하고 온 인원이 약 4천명 있습니다.

물론 실업자는 4만이나 40만도 넘을줄 압니다마는 이 서울시 직업소개소를 찾오온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선해준것이 약 2천5백명 정도 됩니다.

이것 대단히 신기한 일이올시다.

이것 무슨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2천5백명이라도 알선을 했다는것은 참 좋은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주로 식모 또 미군부대에서 노무원을 요할때 대단히 급할때 시를 찾아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5백명정도의 인원들 알선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공익전당포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것은 금년도 작년도에 그 취급한 건수가 우리 서울특별시에 기 공익전당포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대단히 미비한 설비요 활발치못한 경영을 하는것을 자인하고 우리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4만3천건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100환 2천건 정도가 이 영세하고 가난한 우리 시민들이 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의 부진한 상태를 볼것같으면 이것은 시립으로서 공익전당포라는 간판을 부치고 경영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마는 해도 역시 건수로 볼것같으면 4만3천건 즉 하루에 130이라는 시민이 이것을 이용하고있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또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달리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자금이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와서는 이것을 5천만원을 더 起借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적어도 배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좀더 우리가 각도를 달리해서 즉 서민은행같은것을 발전시킬 길이 없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시찰이시고 또 착안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생각으로서는 이 서민은행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공익전당포의 방식보다는 아마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는것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외국의 실례라든가 또한 우리 한국의 발전에 비추어 이것은 좀더 크게 연구할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한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약환자에 대한 문제올시다.

지금 서울시가 마약환자 치료소를 개설해 가지고 약 140명 정도를 수용하는 시설을 갖고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년 40만원을 초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여기에 대한 원조를 하는것은 200만원정도에 근사한 금액이올시다.

특히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마약환자를 거의 전담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 마약환자는 아까 안의원도 말씀한것과 같이 이들의 전도를 염려하는 인사라면 이문제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긴급한 대책을 요할 문제이니 거기에 따르는 근본적인 시설을 갖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저도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기국가적 시설밑에서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특별시가 이마약환자를 치료하고있는 형편이 올시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경비도 국가가 적어도 반내지 전담을 해야될 것이 사리상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거의 명목상의 원조만을 받고있는 형편이 올시다.

이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 하나의 공익시설로써 설치할수있다.

또 설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해도 역시 이것은 좀더 국가적 견지에서 해결하지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보아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갖고있는 이 기관을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정부에 요청해서 이것이 좀더 전국적인 견지에서 중앙정부가 일괄해서 이것을 치료하는 경향으로 나가도록 종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재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또 역시 이것은 국가적인 하나의 임무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그런상태에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대해서는 여러분과 더부러 상의해서 해결할 문제인것이 올시다.

그 다음에 저는 문외한이 되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해

도 야간 개업에대한 문제올시다.

이 야간개업은 역시 법에 규정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야간개업을 하는분들은 거의 학자님들이고 또한 대학이나 국립병원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러한 분들인데 이런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학자님을 우대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연구할수있는 길을 주지 못하고있는 현상이 비추어 자연 이러한 경향으로 흐른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 까지나 법의 규정에 관한문제로써 앞으로는 안의원 말씀과같이 좀더 엄격한 한계를 그어서 여기에대한 단속을 해야될줄 압니다.

그 다음에 오간수 다리 그 을지로6가 오간수다리일대부터 청계천에 대한 계획여하?.....

이 문제 올시다.

이것은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있는 문제이고 또한 관련이있던 문제인데 자세히 말씀하자면 이 청계천 복개공사는 본래 초대 시의회가 건설해가지고 이것이 시발된 것이 올시다.

이것은 도시계획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하천으로 되어있고 마 근자에와서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기간도로를 많은 주택가에다가 만드는것보다는 이 하천인 청계천에 내논것이 여기에 경비도 적게먹고 또 시민에 혜택을 주고 그야말로 미관상이나 기 효용가치를 보아서도 효과가 있다고해서 저의들은 이런 소견을 가지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히 계획으로서는 작년 12월 31일까지 다 완성할

수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의치 못해서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빙기가 되면 곧 착수해서 단기간내에 금년여름까지는 완성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문제와 더불어 경성 서울역뒤 용산의 하천 이런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될것으로믿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보고 뿐만 아니라 이문제의 특히 오간수 다리밑은 그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판자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공사비도 공사비려니와 또한 그 50미터 도로를 계속할것인가 혹은 철수할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것이고 만일 그대로 계속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한 여지가 남을것입니다.

그 잔여지를 어떻게 이용할것인가?

아까 시장님도 말씀과같이 그것을 단순한 시민의 출혈로서만 할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가에 의욕을 그 주로써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앞에서 공명정대하게 民間株를 여기에다가 투입 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것이 또한 연구할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추찰하기도 어렵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하나의 과제로 남겨둔것이 옳시다.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그 복무하는 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책이 있는가?

하는 문제 옳시다.

이 공무원의 복무태도는 이미 법에의해서 규정되어있고 또 처무규정으로 뒷받침 받고있는것이 옳시다.

그럼으로써 언제나 공무원은 그야말로 그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무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복무할 그런 임무가 있는것이 올시다.

시장이 갈리고 또는 무슨 정책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다고해서 공무원의 그 복무태도가 달라질수없는것이 올시다.

다만 과거의 그 날의 정권이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가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못하고있는 이 시간에 그 공무원 그사람은 그 자연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사람으로서 계승되고 있음으로써 여러가지 그 불합리한점 부자연한점을 많이 발견할수있을줄 압니다마는 역시 공무원은 본래 그 정치와 관련이 없는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은 지금 대한민국 법이 달라진것이 아니고 그 제도를 그대로 추진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해도 그러한 의미에있어서 공무원이 그 기강을 잡지못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는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불가한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시장님도 잠깐 언급된줄 압니다마는 해도 이것을 법에있는 이미 처무규정에 있는 문제보다도 그 정신적인문제 그 바탕이되는 이정신적인.....

공복으로서 봉공하는 그 근본적인문제 여기에 이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료 전체적인 그러한 시대는 물러갔고 그야말로 민주국가로서 완전한 자치체재하에서 시민의 공복으로써 존립할수있는 그러한 시기가 왔는데 여기에대한 자각 여기에대한 그 분발 또 여기에대한 노력이 이것이 촉구되는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훈련 또한 그자신의 생활태도에

무슨 변혁 이런것도 또한 여기에 따라가야 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훈련소를 만들어서 공무원의 그 자질을 향상하는것이 중요하지만 해도 전자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크게 줄기차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도 시장님 말씀과 같이 정신적인 면으로 좀더 분발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시민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또한 시민의 대표자이신 시의원님의 의견을 그 청이불문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사정없이 여기에 대한 그야말로 일벌백계주의의 그 방침을 아니할수 없을줄 압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한 협조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우봉운의원 질의의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봉운의원께서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인간인 고로해서 시장님의 인사문제에 대한 그 담화 내지 취임사 또는 의회에 대해서도 답변 마 이런고로해서 우리공무원이 인간인고로해서 마음의 동요가 없지않다고 제가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오늘하다가 내일 그만둔다고 하드래도 오늘은 자기임무를 수행해야 될줄압니다.

집무태도에 대해서 동요가 있을수없고 또 그 사무혼란이 있을수 없는것으로 저는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자신이 여기 자꾸 공무원을 격려해서 계속 성실한 공무원의 임무를 다하고 또한 건설적인 의미에서 이격동기에 처해있는 우리 공무원은 그 안정한 사회에 처해있는 그 외국의 공무원과는 달라서 우리가 성의있게 일하

고 또 크게 책헌한다하드라도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어렵고 또 상부에서 인정받기도 어려운 그러한것이 이격동하는 사회의 하나의 특례가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희생 그 운명적이라고 할까요.

참 과도적인 하나의 부산물이라할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구애함이없이 앞을 바라보고 곧세게 또한 성실하게 시민에대해서 봉사하는것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동 폐합에대한 문제올시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지금 인구 220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히…….

저도 초대 시의원으로서 그때 선거 연설을할때에는 150만 시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과하다고핀잔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오늘 4년후인 오늘에 와서는 220만을 헤아리는 대단히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자치제도로 보아서는 이 동이 저산 두메에있는 강원도나 제주도에 자그마한 면밀에 있는 동 그와같은 대열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여기에 많은 모순이 있는것입니다.

원칙적인 그지방 자치제도가 좀더 세분된다면 그도같은 그런 상층자치 기관 또 시읍면같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치단체 또 거기에서도 시와같이 도시 형태를 가진것 도 읍면과같이 농촌의 형태를 갖춘것 이렇게 서너가지로 볼수있고 또 서울특별시와 같은것은 그것을 다합한것 그리고 그것이야닌 그야말로 복잡한 자치단체를 우리가 상상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할뿐만 아니라 현실이올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법은 그렇게 세분되지 못하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하면 도·시·읍·면·서울특별시를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러한 법제도 올시다.

역시 사실에 적응하지 못한 법제도이기 때문에 많은모순이 여기에 있는것이고 이 운영에있어서 묘한 妙方을 취하지 않으면 이 부자연하고 역효과나는 일이 많은줄 압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서울특별시의 이동 운영에대해서는 그 법령에 그해석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서라도 그야말로 하나의 행정말단기구로서 또는 자치적인 그 사명을 완수시키면서 운영해나갈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야 될줄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 폐합문제와 동에대한 사무이관 문제 이것을 대단히 절실한 문제그 서울시민이 가질수있는 또는 부과된 하나의 그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현상이올시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1년도의 예산으로서 동에 쓰는 비용이 작년도에 14억환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묻혀가지고 금년도에 와서 12억환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목적세인 동세에의해서 경영하게 되어있는데 그 지금 서울시가 받아드릴수있는 동세는 4억 5천만환 밖에 안됩니다.

그래 결국은 그 3분의1밖에 안되는 경비를 가지고 그 3배의 임무를 다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고 따라서 이것은 본래부터 특별회계로서 그야말로 동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서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안되는 그 제도상 그렇게되야 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얼버무린 것은 이 4천5백만환 가지고는 도저히 동을 경영 할수가없어서 이것은 편법상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경영하는 그런 마당이기때문에 일 반회계에다가 혼입해가지고 지금 예산정책을 과거부터 하고 있는것이 옳시다.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안드려도 다아시다싶이 4292년도 즉 허정씨가 시장님으로 계실때에 이문제가 논의됐읍니다.

그래서 우리시의회가 여기에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 하고 다만 그 동에대한 구역문제 라든가 또는 동명이라든가 이런문제에는 약간이 이견이 있었읍니다만해도 그 원칙에대 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던것이 옳시다.

그러니 그당시 그정부가 앞으로 선거를 치루고 나가는데 있어서 역시 동폐합은 그당시 자당에 불리하고 뿐만이 아니 라 동 폐합으로인해서 많은 동회의 직원이 동요하고 동장님 이 갈리고하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나쁜 결과가 올것이라고해 서 그야말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강제로 이안을 철회해간 사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까지 실현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러했읍니다마는 앞으로의 이 동폐합의 역시 표 준점은 인구를 주로해서 또한 그지역적인 문제를 여기다가 배합을 시켜야 될줄압니다.

이 중앙지대에는 종로나 중구는 또는 그외의 중앙지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구 10만…….

5천정도 이하는 이것은 제 사안이 옳시다만도 그런 정도로 해서 두 동합 또는 세 동회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의 발전을 생각해서 앞으로 인 구가 그방면으로 많이 많이 늘것을 감안해서 너무 인구에 대 한것만 하지말고 지역에대해서도 배합을 시켜가지고 표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것같고 이 사무에 대해서는 역시 적어도 호적사무 병무사무 그외에 증명 기타 그세무관계 그것이 동으로 다 이관되지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호적관계법이라든가 호적법에 볼것같으면 구청장이 그 책임자가 되어있고 실지로 볼것같으면 구청장이 호적부니 또는 기류부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동장이나 동의 서기를 갔다가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올시다 해도 지금 법으로 보면 구청장이 그책임자 올시다.

이것을 법을 고치지않고 그렇게 그사무를 이양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절차상에 애로도 있겠습니다 만은 여하간 이것을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대해서 관계기관과 절충해서 양해를 얻어서 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동직원 전체수효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원을 할수있을줄 압니다마는 각동마다의 인원은 상당히 늘여야 될줄압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청으로서 말단자치기구로서 그래도 떳떳하게 사무가 처리되어야되고 또 그시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동장 선거전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동장선거전에 이것이 되지않는다면 또한 4년동안은 못하는것으로 저는 알고있기때문에 여하한 난관이라도 무릅쓰고 한번 해보는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사실상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시장연설에다가 그것을 넣은것은 여러분의 시의원님 여러분의 절대한 협조를 받아야 되겠고 또한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야 되겠기때문에 시장연설에 답한 것이 올시다. 여기에대한 앞으로의 협력을 요구하며 또한 이동폐합과 더불어 서울시 자체의 기구에대한 재편성 또는 인원 재배치

이것을 중대한 문제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유능한 젊은 그 사무가들의 의견을 또는 조사 연구를 여기에 동원할것입니다마는 또한 시의원님 여러분의 직접 또는 간접의 여기 참여를 저희들이 요구할 작정이올시다.

과거에 시의회가 권유한것과같이 기구 간소화 동폐합에 대한 무슨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러한것을 과거에 권유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참여를 못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진해서 그러한것을 요구할 그런 생각을 갖고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주고 연구하시고 또한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 건설공사 기타 여러가지 그 물품구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세상에 물의를 자아냈고 그 시의회에서도 이것이 크게 논란되어서 어느정도 시가 좀 나아진 경향으로 와있을줄 알고있읍니다.

그러니 3·15 부정선거를 전후해서 소위 여러분들도 다아시는바와같이 사전공사를 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정치자금을 그야말로 탈취했고 그러한 양상을 땀으로써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감이있고 또 어떤면에 있어서는 옛날보다는 더 좋지않은 그런 악질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렀던것도 세상이 다아는 사실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 재정법은 또는 건설법규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개 입찰을 주로 하고있읍니다.

예외로서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할수있게 되어있읍니다.

과거의 실례를 볼것같으면 이 시의회가 개설되기전에 행했던 사무감사에서 나타난것을 보면 총계자금 주요한 그공사 물품계약고가 높은 구매에있어서 초대시의회에서 지적한데에 의할것같으면 약 96 「푸로」가 원칙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것을 그때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반수이고 금액으로 따질것같으면 거이 98 「푸로」이분정도가 일반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또는 지명입찰로서 되어졌던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지명입찰에 있어서도 그 액수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거이 「이코루」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두꺼운 봉투지를 다 들여다볼수있는 의원들만 모여든지 여하간 그한푼의 차이없이 그렇게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한 관계로해서 초대시의회가 강경히 주장하고 또한 그뿐만아니라 그당시에 집행부가 반성해서 일반공개입찰을 원칙으로하는 그재정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 노력을해서 시행할려고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있었고 또 어느정도까지 그것이 되었던것입니다.

그것은 3·15 부정선거를 전후로해서 그야말로 설계도 안하고 택지도 정하지않고 집을 지는다고하고 입찰을하고 그 입찰이 실질적으로보아서 이행했는지 안하는지도 누가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되어있는줄 압니다마는 그러니 무모한 일을하고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여러분께서도 당황하는 이러한 현실조차 나타났던것이 올시다.

제가 믿기에는 이 건설공사를 어떻게든지간에 좀더 정확하게 그야말로 건설적으로하고 물품구매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지금 배부받고있는 예산에대한 재검토를 잘 해주셔야 될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비에 있어서 소모품 또는 비품 이런문제에 대해서 거이 그 단가에대한 차이는 여러분이 많이 발견을 못할줄압니다마는 금액의 차이는 많이 발견할줄압니다.

이것은 되도록이면 절약해서 되도록이면 그 일반행정비를 절감해서 복지사업 건설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그러한 열의에서 나온것이 올시다.

그 다음에 제가믿기에는 설계에대한 검토가 필요한줄 압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만일 시간이 허락하지않으면 예산심의후라도 제가 믿기에는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도 이 설계에대한 검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추진하고 또한 공명정대하게 일을 추진했다는것을…….

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때에따라서는 필요한줄 알고 대학이니 또는 기타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과견를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듣고 또는 건의를 받아들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공평하게 공사 또는 그물품에대한 감독을 하고 검사를해야 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뒷받침할만한것이 이것은 공무원 자체의 문제이기대문에 어려운줄 압니다마는 여기에대해서는 역시 의회가 앞으로 사무감사회계감사에 있어서 이문제가 다시 그논란이 될수 있고 또한 이 감독권을 발동함으로서 한다는것을 전제로 함으로서 공무원이 자중하고 또한 건설적으로 일하면 그것이 표현될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만

해도 설계를 이유없이 변경하는일이 과거에 많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타성으로서 남아있는것은 제가 목번했습니다.

처음에 입찰하는 당시에는 그것이 구조가 도로짙기로 되어 있는것인데 입찰한 뒤에는 그것이 벽돌로 진다든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도 없습니다만해도 하여간 그 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으면 아니되고 또 설계에있어서는 거기에 흡사한 어떤 부분이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될줄 알기때문에 그런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중하겠습니다.

또한 담보 사재담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믿기에는 보통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했든후에 2년까지는 담보로하는 그 관례가 있습니다만해도 어떤문제에 있어서는 그이상의 담보를 하지않으면 안될줄알고 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법을 써보겠습니다.

사실상 거대한 금액을 내어가지고 공공시설을 했는데 1년 후에 그것이 문혀진다든가 또는 터졌다든가 또는 사용가능하게된 사례는 왕왕 있는것이고 또한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년차계획이라든 그 구실하에 분할계약하는 이런예가 많이있습니다.

아까 무슨 다리에대한 실례를.....

또 시장님의 말씀하신 그것도 그러한 일례가 아닌가? 추찰합니다.

역시 처음에 다리를 놓는데 그 어떤 기초공사를 하여 여기에 대해서 소위 「이리꼬미」를 해가지고 싼가격으로 넘겨서 기득권을 얻고 다음에 분할해서 계약할대에는 새로운 단가로서 수의계약할수있는 그런 토대를 구수하는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고의적으로 했든지간에 또는 부주의하게 이런 짓을 했든지간에 이것은 행정당국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2년내에 될수있는 사업이면 년내에 다할수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1차 입찰을 시켜서 또한 그일의 진도를…….

어떤 단계를 짓는다면 몰라도 분할을해서…….

그것을 분할을해서 계약을하고 년차적으로 이것을 변경해나가는 일은 없어야 될줄 압니다.

다만 여기에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셔야 될문제는 과거 서울시가 경영하고있는 사업가운데에 공공사업 가운데에 아직 준공하지못하고 그야말로 예산의 뒷받침 또는 보조금의 분할배부 이런 결과로 말미아마 이것이 다시 재계약하고 또는다시 예산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이것을 하지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있는것은 허다히 많습니다.

해도 적어도 시당국으로서 할수있는일이고 또한 가능하면 중앙당국의 보조를 얻어서 실시할수있는 그런공사가 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이것을 시행할수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렇게 주의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방식에 대해서도 일반공개입찰을한다고해서 그것이 곧 공정하게 된다는것도 아니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실례를들면 아까 고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해도 현장설명을 할때에 「빠-쓰」를 대절해 가지고

수백명이 현장에가서 그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등록을합니다.

거이다 등록을해요 그래놓고 입찰할때에는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즉 그야말로 그 입찰을 미끼로하고 일반공개를하고 그야말로 사업가아닌 그 사업가들이 여기에 응집해가지고 진정한 사업가를 괴롭히고 또 그 공사입찰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것이 올시다.

그 이면에는 사소한 이익을 부당이익을 여기에서 추궁하고 또 주고받고하는것을 우리가 규탄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해서는 법규상 하등제한이 없어서 곤란합니다만해도 시당국으로서는 현장 설명을듣고 또 등록까지한 사람으로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사람에대해서는 앞으로 입찰할수있는 기회를 주지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경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업계에서도 진정한 업자들은 환영하고있고 또는 실질상 그렇게 하지않고서는 관리할수없는 현상이올시다.

그래서 차츰차츰 그런 혼란이 감소해가고 있는것도 사실이고 또 그렇게된다면 일반공개입찰의 근본의의가 살아날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에 대해서 하여간 그말씀에…….

그 시장님 말씀에 그…….

그 文字言句에 구애되지않고 좀더 성실하게 공사를 추진시키고 좀더 그…….

허비함이없이 시민의 귀한 세금을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야말로 국제도시인 서울특별시의 면목을한번

실천해보겠다는 떨쳐보겠다는 그릇에 따라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될줄 알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줄 알고 이것으로서 답변을 끄치겠습니다.

○의장 한상기; 그러면 5시가 되었습니다.

(「그만 합시다」 하느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산회를하고 내일 할테인데 내일의제는 오늘 의 3항 4항을 다시 올려서하겠습니다.

이로서 산회할것을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